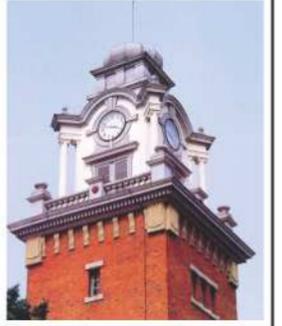




# 時計塔

SIGETOP



2022년 1월 22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9권 1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발행인: 安祐成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편집인: 徐倫錫 徐仁錫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 임인년 새해에 드리는 인사말씀

서운석(편집장, 학술대회준비위원장)

안우성(미주동창회 회장)



흔란스러운 호랑이해 2022년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얼마나 힘든시절인가? 예측을 못한 어려움 중에서도 미주동창회가 결호 없이 시계탑을 정시에 발행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대부분의 다른 동창회나 모임에서는 대면 행사가 취소되고 Zoom이나 비대면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참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암담한 때에 우리 시계탑 발행은 격려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에게는 필수적인 유일한 소통의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우리 편집위원들의 사명감은 무거웠습니다. 전화나 종이신문에만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압니다. 시계탑을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애독하시고 배달되기를 기다리시는 동문이나 그 가족들이 전화를 주시고 격려하셨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거의 48년이 되어가는 시계탑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 다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신문입니다.

그동안 구독하시고 원고를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려운 팬데믹 때에 좋은 글과 전문적으로 짚은 예술사진과 손수 그린 작품을 보내주신 여러분! 대단합니다. 의료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만이 쓰실 수 있는 체험과 지혜가 담긴 귀중한 글들을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90이 훨씬 넘으신 52년 졸업하시고 10문 10답에 옥고를 보내주신 송재현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곳 시카고의 강수상 선배님, 예일대학에서 방사선을 전공하시다가 뉴햄프셔로 이사 가신 신명수 선배님, 뉴욕의 노용면 선배님, 워싱턴의 임종식 선배님, 뉴욕의 김해암 선배님 더욱 건강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투고하시는 이회백 선배님, 독서를 많이 하시고 얻은 독후감, 팬데믹으로 어려울 때에 쓰신 글이라 모두 의미가 깊습니다.

분주한 병원 일 사이사이에 모든 원고의 오자를 찾아내고 철자법과 문맥을 교정한 서귀숙 편집위원님과 또 서귀숙 위원을 수년 전에 추천하신 이선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1월부터는 원하신 대로 편집위원으로는 사임하고 계속 장학위원으로 수고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1월 호에서는 10문 10답에 영어로 답하신 이한중 님의 글을 올렸습니다. 시계탑은 한글 신문이지만 미주 대학동창회 신문입니다. 저자나 독자가 서로 소통이 편리한 내용이라 영문 답을 허용합니다. 2-3세대에게 주고 싶은 글이라고 영어로 써서 보내신 저자의 마음에 이해가 갑니다.

늘 뛰어난 세계 근대역사의 내용을 보내온 온기철 동문의 글 중 잊혀 가는 1946년 10월 대구 폭동과 내방가사 조애영(63년 졸업 이병봉 님의 어머니)님의 글은 시편이 우수했고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내용은 특이했으나 부분적으로 우리 시계탑 원고 기준에 맞지 않아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이오아에서 참여하는 박은경 편집위원의 고정 칼럼, 여러 동문과의 대화는 미국으로 오는 젊은 동문들에게 항상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SNUCMAA US.ORG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주광국, 송경민 두 분이 주관하는 Website는 긴급사항을 공지하는 우리 미주의대 동창회의 비상 창구가 되어있습니다. 신속하고 꾸준한 두 분의 노력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7차 미주 학술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20년 4월 초의 개최 예정에서 발생한 COVID-19 팬데믹으로 취소된 후 2021년을 공백으로 보냈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어려운 이때 질병의 방역과 치료에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진료하고 있는 남가주 지역도 다른 모든 곳과 다름이 없이 현재 Delta와 Omicron의 출현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료인들의 사명감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은퇴하고 계신 선배님 여러분! 계속 인내심을 갖고 CDC가 추천하는 건강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면 수개월 내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첫째로, 4월 초로 예정되었던 37차 학술대회를 날짜를 6월 23일-26일로 변경했습니다. 장소는 전과 동일하며 Westin Hotel, Virginia입니다. 둘째로,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동창 회비를 납부하시고 도네이션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시계탑 발행을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오신 편집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창회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미주 SNUCMAA 동창회 장학생을 선발하시고 결정하신 장학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제 2년째 본인은 동창회의 중임을 맡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동안 저의 힘이 되어 주셨던 회장단,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저를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남은 힘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 세계가 이 무서운 세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가를 같이 부르게 될 가능성을 기다립니다.

국내외 동문 여러분! 모두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고 금년 4월 초로 다시 스케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Vaccine의 효과로는 부족한 DELTA에 이어 OMICRON의 출현으로 또다시 6월 23-2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행히 Westin Hotel 측과 무리 없이 타협이 되어 다시 희망을 갖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날 6월 23일에 Westfield Golf Course에서 오전 중에 시작하는 골프(신용계 님 담당)가 있고 그날 오후 5시경에는 이사회, 대의원회가 열립니다. 이어서 6월 24일(금요일)부터 학회가 시작되는데 25일, 26일에는 박종철, 신규호 님들이 Scientific Session과 CME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과 같이 24일과 25일에는 김영애 (Mrs. 김성환) 수필가 님이 Non-CME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은 안우성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준비위원님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유행병의 상황과 약속한 국내외 강사진들의 유동적인 입장 때문에 자세한 최종 내용은 다음 4월 호에 발표합니다. 문의사항은 동창회 김 사무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타계하신 동창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의료 일선에서 환자 진료를 맡아서 수고하는 국내외 여러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현대 과학의 지혜와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힘을 합치면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와 평화를 곧(수개월 내로) 되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 SNUCMAA of North America 37th Convention

# 37차 서울의대 북미주총동창회 학술대회

팬데믹으로 인해 2년씩이나 미루어진 가운데 오는 3월로 예정하였던 북미주 동창회 제37차 학술대회가 다시 6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4월 호 시계탑에 게재할 것 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인 만큼 많이 참석하셔서 동기, 동문들과 만남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June 23(Thursday)~June 26(Sunday), 2022

at Westin Tysons Corner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Tel: (703) 893-1340

# 미주동창회 제1차 대의원회 초록

2022년 1월 22일(토) 동부 오후 3시, 서부 낮 12시 Zoom 화상회의

서부 화상회의 참가자:

김태웅(63) 이견일(68) 김성환(71) 김일영(71) 김동훈(77) 차민영(82) 김자성(85) 김영애 여자

동부 화상회의 참가자:

이만택(58) 허선행(64) 최영자(66) 서윤석(68) 남명호(81) 서귀숙(84) 강민중(91) 박종철(99) 박은경(00) 존 백 fund manager

Proxy:

임종식(57) 채규철(59) 한기현(63) 권정덕(64) 최준희(64) 김의신(66) 이명희(66) 최순채(66) 신규호(68) 주광국(68) 임용규(69) 강창홍(71) 이원택(71) 최영철(71) 정균희(72) 고용규(73) 문대옥(73) 민인기(73) 서인석(73) 한민우(75) 김원정(75) 전경배(75) 안우성(76) 한승신(76) 최광희(79) 이선희(81) 이선규(89) 임경빈(99) 송경민(09)



1. 2022년 1월 22일(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3시(서부시간 정오 낮 12시)에 Zoom으로 화상회의 1차 대의원회를 시작하였다.

원래는 2022년 1월 15일에 Cisco WebEx를 통한 화상회의로 예정이 되었던 것이 WebEx의 technical 문제로 인하여 무산되고 1월 22일 다시 열린 것이었다.

2. 지난 회의 초록(2021년 10월 19일 제1차 이사회)을 요약하여 읽은 후 참석 전원의 동의를 받고 1차 대의원회의 각 부서 보고가 이어졌다.

3. Treasurer(85 김자성) 재무보고:

2021년 7월 1일에서 2022년 1월 15일까지의 은행 잔고 액수와 동창회비의 합계와 각 committee fund의 합계 액수를 보고 하였다.

4. Fund Management committee report(Fund Manager, John Baek 보고) 장학 fund와 특별 fund 모두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돌아오는 수익률이 주식에 오르고 내리는 데에 비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임을 보고 했다.

5. Scholarship committee(91 강민중) 보고:

Scholarship committee member의 미주 교포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장학위원들의 각자 선정 설명을 거쳐서 committee meeting을 Zoom meeting을 하여서 선정 결정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COVID 사태로 인한 영향인지 올해는 신청자 수가 적었고 그 quality 또한 높지 않아서 장학지원금을 지원하시는 donor의 취지에 맞도록 매 해 정해진 숫자에 맞추지 않고 심사를 하여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태웅(63) 동문께서 장학위원회에 모든 심사를 맡기신다고 하시면서 가능한 한 \$3,000씩 매해 3명의 김태웅 장학생이 평균적으로 주어지기를 희망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다.

올해의 장학위원회 심사 결과 미주 교포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김태웅(63) 장학생 1명과 4명의 SNUCMAA 장학생으로 결정이 됨을 보고 하였고, 승인이 있었다. 김정화 여사께서 보내오신 고 이상철(58) 장학금과 최문숙 여사께서 보내오신 고 정일환(63) 장학금은 다음 회기에 각 장학금 2명씩으로 맞는 candidate에게 주어질 것으로 미뤄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Scholarship committee의 3대 중요 활동은,

## 유영걸(76)동문 펜실베니아 주 최우수 의사로 선정



76년 졸업생인 유영걸 동문이 Pennsylvania 주 최우수 의사(top doctor)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Hazleton 타운십에서 소화기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 동문은 'USA Top Doctors'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의료인으로 뽑혔다. 유동문의 수상 소식은 현지 신문인 타임스 리더(Times Leader)에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돼 Hazleton 타운십에서 유명 인사가 됐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의사 이민이 어려워져 유동문은 1981년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왔다. 결국 유학생으로 필요한 토플 시험을 치고 입학심사를 거쳐 메릴랜드 주의 한 보건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보건대학원생으로 공부하면서 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았으나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레지던트 자리를 구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마침 뉴욕 주 Binghamton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병리와 근무를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그 후 오하이오 주 Wright State University 대학병원에 내과 수련의로 공부할 기회를 얻고 열심히 일하여 우수 레지던트 상을 받았다. 그 덕분에 피츠버그 대학병원 소화기 및 간 내과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큰 영광이었다. 피츠버그 대학병원은 당시 간 이식 수술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다. 대학병원에서 2년 일하면서 논문 몇 개를 발표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펠로우십을 마치고 펜실베니아 주 Hazleton 타운십에 자리를 잡은 건 1988년부터이다. 그때부터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환자 치료에 지극 정성을 다하는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다. 지금은 막내아들 부부가 소화기내과를 전공해 함께 Hazleton에서 일하는 기쁨을 갖고 있다. 유 동문의 좌우명은 '신의(trust)'와 '존경

1) SNUCMAA 장학생 선정은 미주 교포 자녀 대상으로 가을학기에 선정하는 것과 서울의대 본교 학생 대상으로 미주 연수 올 학생을 선정하는 것이나 현재 팬데믹 사태 이후 여름 연수가 중단이 된 상태로 다시 재기되기 희망한다.

2) 본교 서울의대 학생들과의 교류: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를 더 알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부분을 파악하는 노력이다.

3)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의 Green Project committee와의 연대.

6. Publication committee(68 서윤석 chair) 보고:

시계탑 발행이 코로나 위험 속 어려움을 이기고 모든 편집위원과 인쇄소, 사무실의 협조와 많은 회원의 동참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편집위원으로 수고하신 이선희(81) 위원님의 사임이 1월 1일 부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러모로 봉사하실 것이라고 발표가 있었다.

독자들의 요청사항 중 하나가 각 지역 동창회 소식과 각 동기들에 대한 소식을 더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7. Website committee(68 주광국 chair, 09 송경민 chair) 보고:

Snucmaaus.org website에 접속을 영동한 곳으로 유인을 하는 hacking 시작이 지난해 가을에 시작하던 것이 이제는 아예 외부인의 접촉을 막는 결과가 와서 현재 전문 업체에서 website 복구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여러 동문께서 website 사용을 하심이 이번 기회에 알게 됨은 힘든 상황 중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복구가 된 이후에는 다시 website 홍보가 나갈 예정이다.

8. Advisory and Exchange committee(58 이만택 미주재단 이사장) 보고:

미주재단에서 한국으로 모금을 보낸 것이 10년 사이 12 million이 되었고 올해부터 다시 3년을 추가로 이사장으로 봉사하시게 되었다고 밝히셨다.

9. Charity committee (66 최영자 chair) 보고:

COVID 19으로 인하여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NYCOCO(뉴욕 장애아동지원센터)이 팬데믹으로 닫혔던 것이 지난해에는 뉴욕 지역에 매우 심한 비에 물난리를 겪었고, 이어지는 COVID spread로 봉사 인력 청년이 모자라서 현재까지 활동이 미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10. Convention committee (68 서윤석 chair) 보고:

미주동창회 제37차 학술대회 일정이 2022년 3월 31일(목) 시작 예정이었던 것이 다행히 호텔 측의 협조를 얻어서 2022년 6월 23일(목)에 시작하여 6월 26일(일)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학술대회 상세 일정과 Registration form 등은 다음 4월 호 시계탑에 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모든 회원이 몇 번의 학술대회 일정이 COVID로 인하여 무산이 된 37차 학술대회에 참석으로 응원하고,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북미주서울의대 동창회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준비를 하는 임원들께 응원을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였습니다.

11. Non CME committee(71 김성환 부인, 김영애 여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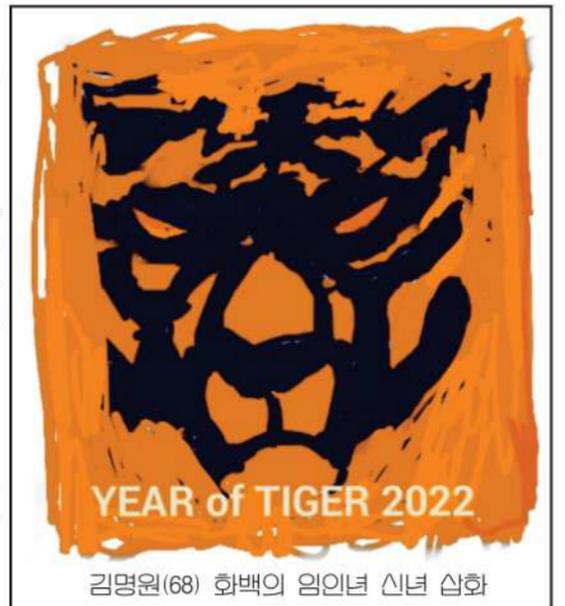
2022년 6월 24일(금요일)과 6월 25일(토요일)의 일정이 현재 몇 강사분의 back up과 함께 완성되었음을 발표하였다.

12. 박종철 Scientific committee(99 박종철 chair) 보고:

제37차 학술대회가 2022년 4월 개최에서 6월로 연기되는 관계로 참석하시는 강사들과 일정 조율이 필요해졌고, 첫날의 강의 주제는 Healthy Aging과 COVID이고, 둘째 날의 강의 주제는 Oncology로 한다고 보고 하였다.

서울대병원에서 몇 분의 강사가 오시는 데에 대한 확인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video clip을 받아서 진행하는 plan 등 상세 의견이 나왔으나 몇몇 준비 위원들과 email로 상의 후 별도 Zoom meeting으로 상세 플랜을 세우기로 의논이 되었다.

13. 연 2주 주말 시간을 내어 오늘 참석해 주신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대의원회 참석자의 Screen shot을 찍으며 마무리되었다.



(respect)'이다. 환자를 신뢰하고 존경해야만 치료 후 만족할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유영걸 동문은 2018년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학술대회 Convention Committee Chairman으로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유 동문의 삶은 미국은 이민생활의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누구나 각자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꿈(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나라임을 확인해 준다. 유 동문의 삶이 미국에서 장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많은 젊은 동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

## 차민영(82) 동문,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2021년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에 차민영 동문(현 미주서울의대 총동창회 부회장)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그는 LA의 서울 메디칼 그룹(Seoul Medical Group)을 1993년에 건립하고 거의 29년간 미주 한인사회 의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전염병의 어려운 상황에서 미주 교민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최선의 예방, 치료 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실에 맞는 정확한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여 큰 위로를 주었고 힘이 되었다. 또한 그는 뛰어난 행정능력으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질병의 예방, 치료, 회복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 SMG 그룹은 총 5,000명에 가까운 의료진이 소속되어 있고 미 전국적으로 뉴욕, 뉴저지, 조지아, 시애틀, 라스베이거스,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다. 차 동문은 오즈옴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주사약의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꼭 해야 치명적인 감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우리 병원 '대한의원'의 시계탑



정준기(77, 서울)



우리 동창회보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병원 시계탑 건물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명으로 1908년 완공한 <대한의원>의 본관이다. 일본제국이 지은 건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연히 고종의 의지와 내탕금으로 세운 우리나라 국립병원 건물이다. 1978년까지 70년간 병원으로 쓰이고 지금은 행정실과 의학박물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병원에 시계탑이 있는 것일까? 다른 병원에는 없는 시계가 <대한의원>에만 있는 이유는? 동창생이나 현 병원 교직원 대부분이 명쾌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이 질문의 답은 옛 군주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간과 계절을 측정하고 이를 백성에게 널리 알려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왕이나 황제의 권한이자 임무였다. 시간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관장하고, 하늘의 뜻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 궁궐에서 물시계인 자격루, 해시계인 앙부일구로 시간을 재어 큰 종과 북으로 백성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따라서 시계는 왕권의 상징인 셈이다.

고종황제는 아관파천 이후 조선의 근대화라는 명제 아래 의욕적으로 새 정치를 시행하였다. 황제는 경복궁 안쪽 건청궁에 기거하면서 1888년 서양식 건물인 관문각과 서재 겸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용도로 집옥재를 지었다. 그 사이에 서양식 시계가 달린 시계탑을 만들어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시계탑은 1902년 한성전기 주식회사 사옥에 만들었고, 세 번째가 대한의원 본관에 세운

시계탑이다. 화란식 벽돌 건물에 네오바로코 풍의 맵시 있는 시계탑을 앉혔다. 제중원에서부터 의료 근대화를 이루려는 국왕의 뜻이 대한의원의 완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그 후 이 두 시계탑은 철거, 파괴되어 대한의원 시계탑이 최고(最古, 最高)가 되었다).

대한의원 시계탑에 있는 시계는 영국제로 여겨진다. 시계의 디자인과 금속 받침대 구조가 영국식으로 그 당시 탐시계의 제조 기술이 뛰어났던 William Potts 사의 제품으로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또한, 시계는 멀리 떨어진 조선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해서 단순하면서도 견고하게 제작되었다는 의견이다.

시계 구동력은 지구 중력에서 나온다. 빼구기 시계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추가 내려가면서 동력이 시계에 전달된다. 실재는 무쇠로 만든 25kg의 원통 추를 실내에서 10여 미터로 높이 올리면 수직 거리로 내려오면서 기계가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시계탑의 높이는 추가 수직으로 운동하는 거리와 관계된다. 이 시계는



원래 동서남쪽 세 방향에 있고 모(母)시계의 톱니바퀴가 3개의 자(子)시계 톱니바퀴에 비스듬하게 연결되어 돌아갔다. 바깥 벽면에 설치된 자 시계판의 지름은 125cm이고 시침과 분침이 1-2kg으로 무거워 반대쪽에 납덩이로 밸런스를 맞추어 쉽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113년 전 당시로는 첨단 기계였던 탐시계도 고장이 나서 그동안 몇 차례 수리하였다. 한국전쟁 후에는 아주 멈추었고, 1959년 의대학생 기자인 김용일(15회)이 탐시계에 관한 사실을 학생 신문에 실었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1960년대 초 700만원의 거액을 들여 시계탑을 보수하고 시계도 고쳤다고 한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로 다시 멈추어, 1982년 전자식 시계로 교체하였다. 병원 의학역사문화원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고장 나 먼지에 덮여있던 본래 시계를 2014년 봄에 복원하였다. 사전 만 원에 달하는 제 경비는 뜻을 같이 한 15대 서울대 정회원 병원장과 임원들이 모금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한국 최고의 정윤호 시계명장에 부탁해 3개월의 작업 후에 복원해 냈다. 영국에까지 건너가 자료를 얻고, 마모된 부속품은 다듬고 손실된 부품은 다시 만들어 완벽하게 수리하였다. 현재 관리상 건물 외면에는 동서남북 4방향으로 전자식 시계를 운행하고, 복원된 기계식 시계는 <대한의원> 건물 3층에 따로 전시하고 있다.

병원 본관의 시계탑은 서울의대 졸업생과 의대, 병원 교직원의 정신적 구심점이다. 의과대학 동창회보, 북미주 동창회보, 병원신문의 제호에 모두 시계탑 이름이나 그림이 들어가 있다. 병원의 공식 로고도 시계탑 건물 모양이다. 정확히 인식 못할 수 있지만 대한제국 황제가 품었던 근대식 왕립 병원의 뜻과 전통을 이어 받아, 국가 중앙병원의 위상과 책임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시계탑은 긴 세월 동안 수 많은 환자와 가족이 병에 대한 염려, 기대와 실망, 희망과 환희를 투사하던 대학병원의 상징이었다. 또한 의대생들이 교직원과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진료하면서 겪은 고난, 좌절, 꿈과 성취의 추억들이 장구한 세월 속에 섞여 있다. 시계탑의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동문 여러분이 모교에 새로운 자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맺는다.

\* 사진 자료는 의학역사문화원(문화원장 박기호 교수)의 김상태 교수가 제공했습니다. 전시된 탐시계를 관람하려면,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 있는 <대한의원> 건물 2층 의학역사문화원 사무실(02-2072-2636)로 오시면 됩니다. 관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정준기(77년 졸업, 31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 문화원장 역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에 전시된 시계와 1908년 개원 당시의 대한의원과 2000년대 현재의 병원 모습



## 68년졸업 버지니아 동기 골퍼들

지난 2021년 12월 20일 Centreville VA에 있는 Westfield Golf Club에서 68년도 졸업인 김영덕 김주평 김희주 김철 서윤석 신용계 주광국 동기들이 화씨 40도의 날씨에 모여서 노의장을 과시했습니다. 이날 신용계 동문은 만 78세에 76타를 쳐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는 2022년 6월 23일 학술대회가 예정대로 열리면 이 코스에서 골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COVID 중에도 거의 쉬지를 않고 신용계 골프 대장의 수고로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운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추운 날씨라 옷을 껴입어서 모두들 건강하게 보입니다.

###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지난 시계탑 10월(제4면과 5면)호에 게재된 강상진(59) 님의 글 <그 당초에>에서 누락 사항과 정정 사항입니다.

누락된 사항은; 5면 좌측 하단에서 10월과 9월 사이에 추가로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부의 성장에 따라 본교 동창회 본부와의 관계도 더욱 공고하고 긴밀하여져서 1985년에는 제24대에서 29대까지 서울의대 동창회 본부의 회장을 지내신 강신호(52년 졸업) 선배님의 미국 여행 계획을 듣고 우리 뉴욕지부에서 초대하여 동석하여 주시기도 하였다.>

정정사항은; 내용 중에 제1호 시계탑 휘호는 김성진(30) 님의 아드님인 김시한(58) 님의 설명으로는 선친의 글씨가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시계탑'이라는 휘호는 서인석 편집장 때 현재 LA 거주 47대 전회장 정근희(72) 동문의 글로 바꾼 것입니다. - 글: 편집인 서윤석

## 삼가 故人들의 冥福을 빕니다

용준식(52, 龍準植 Yong June Sik) 선배님 별세

1929년에 출생하시고 1952년에 졸업하신 용준식 선배님께서 지난 2021년 12월 28일 만 92세의 일기로 타계하셨습니다. 뉴욕에서 정신과 의사로 오래 활동하시다가 남쪽인 Bristo, VA로 은퇴하셨으며 부인 Patty Yong과 60년간 결혼생활을 하시고 슬하에 5남매와 많은 손주들을 두셨습니다. 항상 서울대학을 나온 것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셨다고 부인 Patty Yong께서 편지실에 우편으로 전해왔습니다.

김용덕(59) 동문 부인 박용분 여사 2022년 1월 1일 별세

### OBITUARY OF YONGBOON PARK KIM



Yongboon (Park) Kim passed away peacefully of natural causes on January 1, 2022, in her Fairfax home at the age of 86.

Yongboon was born July 25, 1935, in Sosa, South Korea, the youngest of nine children. An exceptionally bright child, Yongboon left her small hometown to attend two of the most prestigious schools in Korea: Kyunggi Girls School and Ewha Womans University.

It was in Seoul that the beautiful Yongboon Park married Dr. Yong Deok Kim, in January 1961. They welcomed their first child, John (Suk Joong), later that same year. Their second child, Ann (Hyun Jung), was born just days before Yong Deok had to leave home to serve as a medical officer in the Vietnam War. Upon Yong Deok's return, the young family emigrated to the U.S., where daughter Alice (Ho Jung) was born.

Yongboon's life was marked by many hardships including the deprivations of the Korean War, the early loss of both her parents, a near-fatal bout with tuberculosis, and the tragic death of her beloved first-born child and only son. Yet Yongboon experienced countless moments of joy and triumph as well. One of Yongboon's proudest moments was graduating second in her class at the Community College of Allegheny County in her fifties after decades of struggling with the English language. Family and friends remember Yongboon as a talented Korean cook, gracious hostess, devoted Catholic, and dedicated mother and wife.

Yongboon is survived by her devoted husband of nearly 61 years, Dr. Yong Deok Kim; daughters Ann Kim (John Wooley) of San Francisco and Alice Blake (Adrian) of Omaha; grandchildren Noah, Bella and Sophie Kim, Jonah and Theo Wooley, Hahn Sol Kang, and Lily, Pierce and Annabel Blake; as well as many nieces, nephews, and extended family. She was preceded in death by her son, Dr. John S. Kim, in 2018.

A memorial service will be planned later in the year, public health conditions permitting.

###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가장 행복하셨던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그동안 하셨던 연구분야는? 임상을 하셨다면 전공과목은?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들었던 때는? 가장 보람된 경험은 언제이었던가요?
6. 의대학창시절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한 두개만 말씀하여주세요.
7. 다시 태어나셔도 의사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8.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에 얻은 경험 중에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긍정적 부정적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소 자량이 되어도 좋습니다.
9.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소개하여주시고. 혹시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언제 끊으셨습니까? 혹시 종교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10.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던 때에 무엇을 의지하셨나요? 편집위원회에나, 의과대학, 동창회나 후배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은?

#### 송재현 (52) 선배님



1. Malaysia에서, Malaysia/WHO /AAD 합동 MEP.(말라리아 박멸 사업)에 책임자(malariologist)로 약 6년 동안 근무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 이민을 결심하고 ECFMG 시험에 합격한 후, 1972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1. 약 7,000불을 갖고 왔습니다.
2. 결혼은 친구 김진수의 누님의 소개로 중매결혼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는 첫아들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3. 왜 의사가 됐는가를 묻는다면 병든 사람을 고치고 돕고 싶어 서입니다.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자기를 희생하고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4. 연구분야는, 1964년도에 WHO/ AID 주최의 MEP 훈련을 6개월 받았으며 한국의 보건사회부 WHO의 말라리아 박멸 사업팀에 근무하면서 한국 내의 말라리아 감염도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또 1966년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말라리아 감염도에 관한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하여 의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임상 관계는 미국에 와서 인턴, 레지던트 교육을 시카고에서 끝내고 Elgin Mental Health Center에서 청소년담당 치료에 10년을 근무하고 동시에 Pediatrics, Family Practice 개업도 했습니다. Elgin Sherman Hospital, St. Joseph Hospital Attending으로 있었습니다.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가정의 화평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의대 3학년 때, 6.25 북한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여 피난 가

던 시절입니다. 그 피난 중에 세 번이나 인민군의 권총 겨냥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발포를 하지 않아서 살아남은 일입니다.

6. 의대 시절 생각나는 것은 1948년 학부 1학년에 진급 시, 서울 의대 예과 수료생 100명과 일제강점기의 경의전 예과 수료생 100명과 합병하여 200명이 동승동 대학교 강당에서 같이 강의 받게 되던 때, 그 복잡한 때가 생각이 납니다.

또 6.25 전쟁 발발 후 서울대학병원은 제36육군 병원이 되고 김동익 원장님은 육군 중령으로 이 육군 병원의 원장님이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LSD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학부 3학년 이하는 육군 일등중사가 되었습니다. 경남여중 건물을 사용하여 36육군 병원을 세우고 3학년 학생은 각과 위생병으로 근무하다가 육군 중위로 임관되고, 학생 군의관으로 부산 광복동에 세운 임시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우리 학생 군의관 졸업생 모두가 일선 최전방 군의관으로 배치되었고 이 동료 중에 4명이 전방에 아깝게 전사했습니다.

7. 다시 태어나도 네, 물론 의사가 되겠습니다.
8.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것은 자식들이 하고 싶어 하는 전공을 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자녀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9. 건강의 비법은; a, 무리하지 않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 걷기 운동 등. b, 집에서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을 것. c, 가정의 화평이 중요하지요. 약은 특히 혈압약, 당뇨약, 매일 혈압을 측정하고, 당을 측정하고 꼭 잊지 말고 처방대로 약을 복용할 것입니다. d, 종교를 갖고 저는 기독교입니다.
10.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을 때 예방 규정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세 번 다 맞으니 이제는 일상생활에 별로 힘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 이한중 (65) 선배님



1. In 1962 -1963 when I was a second year medical student, I heard for the first time there was such a thing as ECFMG for those graduates who wished to go to America for their postgraduate training. In that year South Korea had cholera outbreak and mobilized all medical students including myself for 10 days with good pay. I made up my mind to prepare myself to go to America in case an opportunity should arise. I bought 1963 edition of Cecil Internal Medicine Textbook along with some reference books with that money and started reading 15 to 20 pages a day dreaming of competing with American medical students.

The opportunity did arise, the first official case of Kim's plan by the Korean government, soon after I passed ECFMG exam along with eleven other classmates in October of 1964 some 5 months before graduation in 1965. By then I had read the Cecil Internal Medicine Textbook five times digesting it pretty thoroughly which provided me the necessary foundation and confidence to deal with upcoming challenges. I started the rotating internship at St. Peter Hospital, Albany, NY, on July 1, 1965.

I had 30 dollars in my pocket when I left Korea on June 30, 1965 although Korean government allowed up to 50 dollars then.

2. In 1961 when I was in the first year of medical school, my best friend in high school introduced my future wife to me. We dated four years before marriage. All through my adult life I have tried to be happy here and now, by doing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at hand, dreaming, hoping, and praying that I would experience God's grace by accomplishing my set goals. Good Lord has been most generous in providing me such abundance of His grace. throughout till this day.

3. I was 17 years old in 1957 when I had a chance to see the photo exhibit of Dr. Albert Schweitzer's work in Africa, and made up my mind to become a medical doctor.

If any young man or young woman wants to be a traditional doctor, he or she must have a big heart and a big brain, having a deep understanding of what mother's unconditional love, Jesus' unconditional love, and Buddha's deep compassion is, yet having enough intelligence to stay current in medical science. In other words, he or she needs traits to be a combination of big-hearted old country doctor and at the same time a cutting-edge frontier specialist.

4. When I was a first year medical student, I made up my mind to become an internist, not a surgeon. I was the first and the only doctor in my extended family and wanted to experience the traditional physician going back to Hippocrates. In 1969 when I finished 3 years internal medicine residency, Cardiology accounted some 60 % of internal medicine practice so that it was natural for me to have chosen Cardiology as my subspecialty.

I became an invasive cardiologist and director of cardiac catheterization laboratory next 30 years, and cardiac physiology was my specialized field among others. In 1969 I passed the written exam. of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In 1970 I passed the oral exam. of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at Harvard Medical School. In February of 1972 I passed two days oral exam. of Cardiology Board accomplishing all the goals I set many years back.

5. Looking back all my cherished memories I will carry to my grave have had

to do with my having been able to follow what my heart tells me to do. In other words having courage to follow what your heart naturally tells you to do, in my experience,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in your life.

Although I shared plenty of difficult times as most of my contemporaries did during the school years and later training years in America while raising family of three children, honestly I never felt I was having a difficult time no matter what especially because I was a witness to the War time miseries for three years in Pochun, Kyunggi-do. Nothing I experienced later could come close so I was always appreciative.

I owe everything to my parents, brothers, sisters, my wife and three children, and all other loved ones and friends and all my patients so that if I ever made any of them smile and satisfied even a moment, my life hopefully was indeed worthwhile.

6. Lots of fond memories but nothing out of ordinary.
7. Of course, I won't hesitate to choose medicine as my career again.
8. I have three children, ages 54, 52 and 51, and five grandchildren. Early on I had convinced myself based on my own background that your first job as a parent when your child is born is to make sure your child is mentally healthy retarded. Once you've done that, you let the child grow as naturally as possible without being interfered in your child's decision making processes. All you need then is tons of patience every day. My wife and I stuck to that principle and turned out to be a most liberal parents according to my children.
9. My three children all turned out to be good professionals we are so proud of. My older son with doctorate in education currently serves as Dean, LA campu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My daughter retired as principal of a high school and teaches at a college. My younger son who left Wayne Stat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 the middle remained in medical field, doing a good job. My oldest granddaughter is preparing to enter medical school. My second oldest granddaughter is a sophomore at UCLA, majoring in communication and English. My third oldest granddaughter is freshman at San Diego State, majoring in music composition. She is a fine pianist and plays several other instruments. My only grandson, 9th grader, just won a 3D engineering project award by NASA. His twin sister also is a straight A student. Enough for bragging! I apologize.
9. My wife and I play golf, 9 holes, three times a week, and walk 3 miles a day. I have never smoked. My wife and I are catholic. I was baptized at 명동성당 when I was a third year medical student.
- My wife and I celebrated our second wedding at a Catholic Church in Michigan and received Confirmation at the same time. We belong to St. Edward Catholic Church in Dana Point, CA
10. Daily prayers day and night! Meditating while walking indoors and outdoors! Golfing with wife three times a week.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thank 시계탑 편집인과 편집위원 for their excellent job. Please keep it up! Long live SNUCAA of North America!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once again 2004년 회장단 when I served as President, especially 총무 이태석(67), 재무 오동환(71), 학술회장 윤효운(69, Vice President 황규정(65) and all the committee chairmen.

\*Of note, I chose English for the sake of generations of my children and grandchildren.



### 박종한 (08)동문

(Translational & Experimental Medicine at Janssen R&D)



#### 1. 미국에는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저는 중개의학연구 (translational medicine research)를 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졸업 후 모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기초 의학 연구를 익히고, 그 후 전공의 수련을 받으며 임상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연구 경험을 쌓고 나름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의 핵심에 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동안 여러 방면으로 진로 탐색을 하였고, 다국적 제약 회사의 연구 개발 팀에 소속된 의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주요 업무는 신약 후보 물질을 검토하고 초기 임상 개발(Early Phase Development)을 계획하는 것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어볼 수록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공보의 기간 동안 글로벌 제약 회사 취업 및 미국 레지던시 매치를 동시에 준비하여 2019년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2. 본과 4학년 때 미주 의대 동창회와의 만남이 있었다지요?

본과 4학년 때 선택교과과정인 있는데, 미국이 중개의학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니 미국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해보자고 친한 친구 두 명과 의기투합하였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뉴욕에 와서 컬럼비아 대학교 신경과 프로그램에서 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후, MEXIM(More Experience in Medicine)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병원 실습 신청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그 노하우를 보다 잘 공유하여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는 선배님들이 미국에 이렇게 많이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짧은 뉴욕 실습 기간 동안 미주 의대 동창회를 통해 많은 선배님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훌륭히 커리어를 마치고 은퇴를 앞둔 분, 레지던트 수련 중인 분 등 다양한 세대의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의과대학 선배님들이 큰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고 계신다는 사실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 3. 졸업 후 임상과에서 전일제 박사 과정을 하였다니, 경력이 독특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할 때, 중개의학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기초 연구와 임상을 모두 잘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기초연구를 경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또한, 객관식 선다형(multiple choice) 문제에 답만 잘 맞추면 성적이 잘 나오는 의과대학 교과과정에 진저리가 났던 참이라, 3~4년간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일제 박사과정을 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에 실험실을 운영하

는 임상의를 지도교수님으로 찾은 끝에 순환기내과 김효수 교수님 실험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술한 실험을 하며 연구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좋은 연구는 단기간에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었을까요. 중개의학연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박사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시 임상으로 돌아가며 병원에서 꼭 답을 얻어가겠다는 결심을 했고, 여러 교수님들과 선배들의 도움으로 많은 기회를 얻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연구는 환자의 데이터를 풀어내는 연구이기에 결과를 환자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구의 재료인 임상 데이터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부분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수련기간 동안 순환기내과 구분 교수의 도움으로 아낌없는 지도로 이런 감증을 많이 풀어주셨는데,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며 심혈관 조영 CT 영상을 이용한 관상동맥 혈류 모델링 등 새로운 진단기술을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영상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경망 회로 및 딥러닝 기법 등을 적용하는 연구도 시도했습니다.

#### 4. 이력서에 보면 oncology 쪽에서도 일을 하셨더군요?

레지던트 수련 마지막 해에 국제 학회에 참석했을 때 angiotensin receptor neprilysin inhibitor (ARNI)인 Entresto (sacubitril/valsartan)라는 신약의 임상 시험 3상 결과 발표를 들었습니다.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과 재입원을 획기적으로 줄여 심부전 환자 치료의 지평을 뒤흔들 획기적인 약이라는 발표에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약을 제약회사 파이프라인에 처음 올린 사람은 누구일까? 동물 실험 결과를 검토하고 사람에게 이 약을 적용해보기로 결정한 이는 누구일까? 어떤 논의 끝에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걸까? 그 후 한국 내 바이오 벤처, 제약회사, 투자회사 등에서 일하는 선배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며 초기임상개발의 많은 부분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수십 차례의 cold call/e-mail을 시도한 끝에 다국적 제약회사 연구개발 부사장과 보스턴에서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개발팀이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제 경력에 무엇을 더하면 더 매력적인 후보가 될 수 있겠는지 물어보았는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연구 경력은 현 부팀장보다 많은 정도로 충분하고, 굳이 하나를 더 하자면 미국 임상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고, cardiology 보다는 oncology 쪽이 훨씬 전망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을 더 만나보고 LinkedIn으로 제약회사 연구개발팀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경력을 검토한 후, 일단은 미국에서 oncology fellow를 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의 매니저로 일하려면 미국 현지 사람들과 팀으로 일하는 방식도 익혀야겠다는 판단에 인턴-레지던트-펠로우에 걸치는 7-8년의 추가 수련 기간은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공중보건의 근무를 마친 후 미국에 와서 USMLE를 마무리하고, 시카고 Northwestern University의 채용광(02) 선배님께서 계시는 Phase 1 임상 시험센터에서 연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의 중간 목표인 미국 연구 병원의 초기 임상 연구자의 삶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공동연구자인 Jeff Chuang, PhD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computational scientist들에게 coding을 배우고 저는 그들에게 병리 영상과 임상적 의의를 설명해주는 프로젝트를 이끌며 재미있게 일했습니다.

#### 5. 레지던시는 어땠나요? 한국과 미국의 병원 문화에 차이가 있다면?

Rutgers NJ Medical School의 내과 프로그램에 매칭되어 수련을 받았습니다. Rutgers 내과는 Newark에 위치한 대학 병원, East Orange의 veterans affairs (VA) 병원, 그리고 Livingston의 Saint Barnabas Medical Center (SBMC) 이렇게 세 병원을 돌며 수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다 운타운 한가운데에 위치하여서 그런지 마약을 하는 환자도 많고, 환자 구성이 험한 편이었습니다. 레지던트 1명, 인턴 2명, 학생 1명, 이렇게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서로 모르는 것 물어보고 도와가며 재미있게 일했습니다. 반면에 SBMC는 사보험 환자를 받는 소위 고급 병원이라 환자 구성도 시스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과에 physician assistant가 다 있고, 레지던트 없이도 돌아가는 병원이었지요.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이라, 제 눈에는 오히려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인턴들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어리버리 하는 것도 비슷하고, 인턴에서 레지던트 2년차가 되는 첫 날 자기는 변한 게 없는데 연차와 책임만 높아져서 어색해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에 후들대는 것도 비슷합니다. 수련 과정에서 수련의에게 부여되는 내러티브가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환자들도 아픈 사람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행동양식이 마찬가지로 같습다. 표현하는 방법이나 강도는 다르지만 의사에게 궁금한 것도, 불만인 것도 너무나 비슷해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병원에만 출근하면 한국의 모교 병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왠지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 6. 수련 중간에 회사로 옮기셨는데, 그 과정은 어떠했나요?

레지던시 매칭을 준비하기 전부터 계속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있었는데, 레지던시 매칭이 먼저 되어 수련을 받던 중간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이라는 짧은 미국 레지던트 수련 기간이었지만 도심의 사회 안전망 개념의 대학병원, VA 그리고 사보험 적용 병원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레지던시 시작 한 달 전이던 2020년 6월 Janssen R&D 초기임상팀에서 data science와 cardiology 분야에 익숙한 임상 의사를 찾고 있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이걸 나 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원서를 냈는데, 덜컥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인터뷰에서 "우리 팀의 핵심 업무는 전임상 연구 (Pre-clinical discovery)팀과 함께 신약 파이프라인을 검토하고, 초기임상진입 의사결정에 기여하며 초기임상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이라는 초기임상팀 책임자의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날 병원 건물 사이를 잇는 구름다리를 건너던 중 오퍼를 받고 얼마나 기뻐던지요. 레지던시 프로그램 디렉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마음이 편치는 않았는데, 레지던시 인터뷰때부터 저의 꿈을 알고 있던 디렉터께서 감사하게도 진심으로 축하 해주시며 병원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회사 시작 전 충분한 시간을 쉴 수 있게도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한 년차에 30명이 있는 큰 프로그램이었는데, 병원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기를 희망합니다.

#### 7. Translational & Experimental Medicine부서의 Clinical Director로서의 업무 소개해주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개의학(translational medicine)의 임상 선임자로서 초기임상 시험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것인데, 신약후보물질이 전임상 후기 단계에 이르면 임상개발전략을 수립하고, first-in-human trial과 다양한 임상약리학연구의 임상시험 책임의사로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임상시험 진행을 관리합니다. 두 번째는 실험의학(experimental

medicine) 선임자로서의 고유 업무로, 각 질병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data science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제약회사 연구개발 초기 임상팀에서 일하는 가장 큰 매력은 신약 개발에 온 마음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년 내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고정된 틀이 없고, 매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즐거움입니다.

#### 8. 미국살이는 어떤가요?

아내가 미국에 직장을 잡게 되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이주했고, 저는 공보의를 마친 후 합류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셋째를 임신중이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었지요. 서로 많이 그립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재택 근무를 하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 같이 오래 집에 있네요. 떨어져있던 2018년 내내 하느님께 가족과 같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일주일에 2끼 식사를 다 같이 하게 해달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요. 저희가 맞벌이에 애들이 9세, 6세, 3세 이렇게 되다 보니 차마 생활이 여유롭다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운동 레슨에 데려다 주고 하다 보면 일주일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이미 온지 3년이 다 되어 가서 학교도 잘 다니고 재미있어 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좋고요. 집에서는 한국말만 쓰게 하는데 아무래도 가족끼리 하는 말이 밥 먹어라, 씻어라, 자라 등 단순한 것들 뿐이라 걱정이긴 합니다. 주말에 한국 방송을 보는데, 저희 가족은 슈퍼밴드, 싱어게인 등 주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 9. 지금까지 힘들었던 때 그리고 요즘 가장 즐거운 때?

미국에 오기까지 결정하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또한 당연히 한국에서 다음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변 사람들 -선배, 스승,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결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다. 요즘 회사 일을 하면서 제 일의 가치를 인정받고, 스스로 중개의학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 무척 뿌듯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저에게 장난을 걸 때, 애들 학교 보내고 아내와 둘이 오붓하게 점심 먹을 때, 날씨 좋은 날 다같이 운동 나가서 넓게 펼쳐진 잔디밭을 걸을 때 즐겁고 행복합니다.

#### 10. 미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한참 진로를 고민할 때 커리어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와 달랐던 말이 '처음인데 어떻게 잘하나요' 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제가 본 4대 컬럼비아 신경과 실습 후 계획처럼 잘하지 못한 것에 실망해서 나는 미국에 가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 시도하는 일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짝 맛만 보고 아닌 것 같다고 성급히 결론내리거나 피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충분한 자기 탐구를 통해 원하는 방향을 찾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는 기회들을 마주하시면 그 당시에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서로 연결되지 않아 보였던 경험들도 결국 하나의 커리어로 모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실패와 깨짐을 경험하면서 다음 선택을 더 슬기롭게 하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 분의 10년 후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오늘도 이 땅에서 피워내는 동문들의 향기에 감탄합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사랑의 생성과 소멸

정 유 석 (64, 북가주)

인류가 지구상에서 퍼져나가기 이전 아프리카 초원에 살았을 때부터 인간의 조상은 이미 남녀 사이에 일종의 애정이거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니 그냥 관심이라고 해도 좋다.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서게 되면서 남녀 인간은 서로의 신체를 마주 볼 수 있었다. 유방과 성기는 완전히 노출되었고 상대방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면 남녀 모두 즉시 그 부분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럴 때면 어깨, 손짓, 몸매, 걸음걸이도 전보다 더욱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여기서부터 성행위는 단순한 종족 번식의 목적만이 아니라 사랑이란 감정을 움튼게 하는 행위로 바뀌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수놈이 암놈의 등에 올라타 뒤에서 삽입하는 방법으로 교미를 한다. 네 발로 걷던 때의 인류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추측된다. 얼굴을 마주 보고 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성행위로 인해 남녀는 상대방에게 서로 잘 보이려고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보려는 충동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으리라.

요즈음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자가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장하는 행위는 남성 위주 사회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진 습관이며 예전에는 없었던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다리의 털도 깎지 않는 것을 가끔 보곤 한다. 그러나 미국 여자들의 털이 빠죽빠죽 난 다리를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 해도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여성이 화장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은 이야기인듯 싶다.

3만 년도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공예품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 중 인류 최초가 되는 공예품들은 주로 여자들이 아름답게 보이려고 몸에 치장하던 장식품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삼국시대에 사용되었던 출토품 중에는 옥으로 된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장식품들이 꽤 많다. 화장을 위한 구리로 만든 손거울도 있다. 또 원시시대의 여자들은 화장하기 위해 적색이나 흑색 가루를 사용한 증거도 있다.

여자들만이 아니다. 약 2만 년 전에 살던 남자의 유골이 수천 개의 상아 조각으로 꾸며진 옷에 싸여있는 것을 보아도 남자들 역시 몸치장에 신경을 썼다고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에서 발굴된 벽화에서 말을 타고 화살을 쏘는 무사들의 머리에 꽂은 깃털도 단순한 일시적인 장식품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보면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숲

속에서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도 사실은 수놈이 암놈을 부르는 신호이며 공작새나 칠면조의 화려한 부채 꼬리 장식도 수놈들이 다투어 암놈의 주목을 끌려는 치장인 것이다. 사자 머리의 휘날리는 갈기도 수사자 만 가지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면 남녀관계란 것이 전에는 그저 만나서 교접하고 헤어지던 형태로 시작했고 차차 남녀 사이에 감정이 생기고부터 상대방의 관심을 끌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양상으로 발전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사랑하는 감정이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런 사랑은 영원했을까? 아니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성질이었을까? 인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인간 애정의 수명을 3-4년으로 보고 있다. 서로 만나 아이를 낳고 아기가 두세 살의 유년기를 지나기 게 겨우 빠듯한 정도의 기간이다.

인류학자인 헬렌 피셔(Helen Fisher)는 62개의 다른 문화에서 남녀 간의 결합이 지속되는 형태를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4년 만에 헤어지는 성향이 제일 많았다고 한다.

조금 오래되었지만 한국에서 나온 보고를 보아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이혼연령이 33세로 결혼한 지 5년이 채 못되어서 결별하는 사람들이 전체 이혼녀의 40%에 달한다고 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경향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그 원인이 사별이든 이혼이든 간에 여자가 시집갔다가 흠뻑이 되면 흠뻑이의 재취 감으로나 고려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돌싱'이란 말이 별로 거부감 없이 사용되는 세상이 되었다.

마릴린 먼로가 주연한 '7년 만의 외출'에서 보는 것처럼 권태기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첫아이를 낳고 2-3년쯤 지나 사랑이 식을 무렵 아이를 하나 더 낳아 키우는 기간을 더해본다면 맞아떨어지게 된다. 이 영화 제목이 'The Seven Year Itch'다. 아이 둘을 낳아 키우고 보면 배우자에 대한 성적 매력이 모두 소멸되어 버리고 이제는 다른 상대방을 찾기 위한 관심이 모락모락 솟아나 쯤이 쑤실 때(itch,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몸이 근질근질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옛날 송도의 기생 황진이는 천재적인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훨씬 앞서 살아간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에 의하면 노래 잘하고 놀기 좋아하는 이사종이란 선전관이 있었는데 그는 황진이와 함께 지나가는 사이에 정이 들어 6년간의 계약 결혼을 했다고 한다. 먼저 3년은 황진이가 이사종의 집에 들어가 같이 지낸 후 분위기를 새로 바꾸어 이사종이 황진이에게 와서 나머지 3년간의 약속 기간을 정확히 채우고는 미련 없이 헤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 除夜作 高適

정관호(63, 대뉴욕)

<p>除夜作 高適          旅館寒燈獨不眠          客心何事轉淒然?          故鄉今夜思千里          霜鬢明朝又一年</p>	<p>제야작 고적          여관한등독불면하니          객심하사전치연고?          고향금야사천리하니          상빈명조우일년하니</p>
--	---

선달 그믐밤 밤에 짓다 고적      Written in the Night of New Year's Eve, Gao Shih

여관 차가운 등불에 홀로 잠들지 못하니      In the cold of the tavern lamp light, sleepless, alone am I;

여객 마음이 무엇 때문에 처량해 지는고?      This heart of mine, in sojourn, turned sad, oh why? I sigh.

고향에 오늘 밤 천리밖 사람을 생각하겠는데,      Oh tonight, I wish I were home, yet away a thousand miles;

흰 살썩 내일 아침에 또 일년을 맞이하러나      Come tomorrow--m' hair greyed--another year's gone by!

作者 高適: 타향에서 혼자서 쓸쓸히 선달 그믐밤을 보내는 늙어가는 시인 고적의 모습을 보였다. 반 백이 된 터럭에 내일이면 또 한 해를 보내는 심정이다. 작가 고적(AD 701~765) 또한 당대에 기라성 중의 한 사람이다. 관운이 좋아 절도사, 형부 시랑 그리고 발해현 후에 봉해졌다. 후반기에 시를 쓰기 작하였고, 기개가 표일하여 시인 잠참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 \*영문 번역은 중국 지인이 한 것이다.

## A Physician's Introspection

Lee, Hahn Joong( 65, CA)

Life is a "perpetual motion"  
From beginning to end.  
After so many years of living  
You now can see clearer every day  
How this motion takes place  
As you would look inside of a Rolex watch,  
Triggered by your mysterious spirit  
Followed by your mind's steadily wound spring  
Once again showing off your body's "perpetual motion".

As an aged physician, I can't help eating my own words that I used to give my patients as medical advices for decades.  
For those elderly patients over age 80, where I currently belong, I used to tell them to get up and move around every half an hour during their waking hours.  
If you don't, the earth gravity will remind you unless you are on the moon.  
Now I truly appreciate what I used to say and  
Do my best to carry out my own words.

As an aged physician exploring and venturing the unknown territory  
Day after day, night after night,  
I can't help being in awe by watching the inner workings of the perpetual motion,  
Filling every moment of living this life that began somewhere,  
My memory fails to recall where,  
And that will stop for sure sometime,  
My imagination fails to let me know when.

As a physician,  
I can only watch, observe, learn and appreciate  
The perpetual motion,  
Living this only one life in this universe,  
And do my best to enjoy the ride,  
As long as I can  
As far as I can  
Every now and then  
Conversing with the Creator  
Unknowable to me and perhaps to all sentient beings.

### 편집회 초록 2022년 1월호

모임은 예정된 2022년 1월 15일 동부시간 오후 1시에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터넷 해킹, Webex 연결의 문제로 허선행, 김사무장, 서윤석 세 명만이 영상 참석이 가능했고 황사장은 전화로만 연결되어 참여했다. 서랑, 박은경 두 편집위원은 들어올 수가 없어서 1시간 후 편집장과 연락이 되어 편집사항에 대하여 의논했다.

근래에 동창회 SNUCMAAUS.ORG website 또한 문제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에 보수를 의뢰하고 기다리는 이상한 현상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편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동안 들어온 원고를 논의하고 근래에 출간된 동문들의 저서를 소개하자자는 허선행 님의 의견에 따라 심영보 동문의 수필집 '노년 생활'과 졸업 6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한 61년 졸업생 책을 소개를 하기로 했다. 편집회 1시간 후의 이사회 또한 연결의 문제로 무산되었다. 아마도 그동안 기피해오던 위험성이 낮아진 Zoom으로 바뀌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시계탑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한 이선희 위원이 1월부로 편집위원직을 사임했다. 병원일에 바쁜 가운데도 동창회일에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하여 기여한 이선희 교수의 업적에 깊이 감사한다.

현재 상태로는 시계탑 1월호를 1월 25일경에 예정대로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편집회는 4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을 예정이다. - 글: 편집인

# Skype로 만나는 행복

이 덕 승(60, 남가주)

1960년 서울 의대 14 회 졸업생은 총 140명으로 국내에 72명 남았고 68명이 해외로 나왔다. 졸업을 한 지 거의 62년이 된 현재, 국내에서는 38명 타계했고 생존율이 비교적 양호한 해외 68명 중에서도 28명이 타계하였으니 생존하고 있는 해외 동기생은 40명이고 국내외 합치면 74명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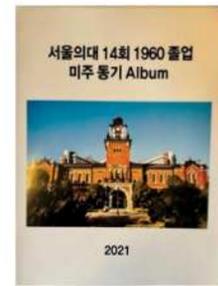
COVID-19 pandemic으로 지난 2년간 창살 없는 감옥생활로 지치고 허전했던 삶이 컴퓨터가 제공해 주는 skype 만남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행복감을 맛보게 해주고 있다. 1935년생인 대부분의 우리 동기들, 2022년 새해를 맞아 한국식으로 나이 한 살 더 먹게 되니 86세의 고령이지만 마음만은 이팔청춘이요 100세 시대에 준하는 건강관리를 위해 나름대로 힘쓰고 있다. 건강식품 복용은 물론이거니와 적절한 운동으로 걷기와 골프 그리고 자신만의 취미생활로 삶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연륜이 더해지면서 찾아온 만성질환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으로 병원 문을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졌지만 매주 모임 때마다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로 그 아픔과 고통을 반감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흩어져 살고 있는 14회 동기생 아홉 명은 매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skype를 통해 만나게 되는데 각 지역의 시간 차를 고려해서 미

동부에서는 오후 4시에 그리고 서부는 오후 1시가 된다. Skype에서 만나게 되는 9명을 소개해 보려 한다.

전희근 (Elkins Park, PA), 이효빈 (Fort Lee, NJ), 전용주 (Yarmouth NS, Canada), 임필순 (Lakeland, FL), 이종석 (Atlanta, GA), 임종원 (Duluth, GA) 최홍락 (Buford, GA), 이상일 (Warren MI), 이덕승 (Burbank, CA)이다. 우리는 지난해 2월 초부터 만나고 있는데 대면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요즈음 돌아가고 있는 세상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 옛날 학창 시절로 돌아가 추억 속에 담겨있던 비밀 보따리의 끈을 하나씩 풀면서 박장대소하곤 한다. 때로는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여정에 관해 진지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숙연해지는 모습도 엿볼 수가 있다.

몇 주 전 모임에서 전희근 동기의 기발한 착상으로 '미주 동기 album' 만들기엔 전원 찬성표를 던져 추억의 사진들이 담긴 36쪽의 album이 출간 배부되었고 한국에 있는 동기들에게도 보내졌다.

Album 제작비용은 이종석 동기 회장이 선뜻 부담했고 사진들을 편집하고 제작하는 모든 일은 전희근 총무가 맡아서 수고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리웠던 동기들과 가족들의 사진을 보면서 지나온 세월 속으로 되돌아가 그 시절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되새기며 앞으로 남은 세월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skype 시간이 자꾸만 기다려진다.



# San Francisco 여행

이 건 일 (68, 남가주)

요 전 주에 San Francisco에 다녀왔다. 편도 380마일 왕복 760마일 거리이다. 좋은 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둘째 처남의 장례 예배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다 정확하게는 SF 근교 Mountain View에 살고 계셨었으니 그리로 가는 길이었다. 그는 나보다 정확히 10년 연상이었고 우리와는 자주 접촉할 수 없었던 먼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15년 전 한국에서 brain aneurism(뇌동맥류)으로 뇌 수술을 받은 후 short-term memory loss(단기 기억상실증)가 생겨 만나 보면 옛날이야기 만을 하시던 분이였다. 서울 공대를 나와 미국에서 지질학을 공부했고 미 8군 공병단 지질학자로 한국에서 30여 년을 근무하다 뇌수술 후 마운틴 뷰에 정착하였던 것이다.

그는 늦은 나이에 두 번째 결혼을 하여 아들 둘을 얻었고 이들이 장성하여 성인이 된 후에 돌아가셨으니 가히 복받으셨다고 하겠다.

특히 두 번째 부인이신 처남 덕 손 여사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지닌 분이였다. 살림, 요리, 육아 어디 빠놓을 구석이 없는 분이였다. 며칠 묵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남편에 대한 사랑, 존경심이 진하게 묻어나는 분이였다. 그러니 뇌 수술 후 15년간을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남편 수발을 하며 한국에서 이사 오고 미국에서 정착하며, 틈이져들인 아들 둘 잘 키워 대학 교육까지 훌륭히 해 낸 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중 저절로 이분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예배 보러 간 곳은 산 호세 근처에 있는 장로교 교회로 신도 수가 1,200여 명이라는 대형 교회였다. 식을 주도하신 박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마음에 와닿았다. 부처님까지 인용해가며 하시는 말씀은 비 교도인 내 마음도 울렸다.

스페인 국기에 두 개의 헤라클레스 기둥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감긴 깃발에는 Plus Ultra (Further beyond)라는 구절이 쓰여 있으며 이는 원래 Non Plus Ultra 즉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 떠 버치고 있는 지중해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는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 한 후에는 non을 떼어 버리고 스페인 밖에도 다른 대륙이 있다는 문구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튿날은 납골당이 있는 묘지에 가보았다. 형님의 유골은 조그만 금속 상자에 들어 있었고 이를 유리로 칸막이를 한 조그만 장소에 모셔져 있었다. 묘지 주위는 숲과 언덕으로 이루어진 아늑하게 느껴지는 장소였다. 형님이 편히 쉬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라갈 때 이용했던 I-5가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도 101을 택하였다. 역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보다 더 볼 경치가 가득했다. 마운틴 뷰를 떠나 마늘로 유명한 Gilroy를 지나니 John Steinbeck의 고향인 Salinas를 지나게 된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야채, 과일이 이곳 소산이었다.

곧 Monterey 들어가는 길이 나오니

그 남쪽에 내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보고 흠뻑 반해 버린 Carmel-by-the sea가 있겠지. Clint Eastwood가 시내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주겠다는 공약을 걸고 시장으로 당선된 바로 그 동네다.

처음 두어 번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Cypress Inn에서 묵었다. 아주 예쁘게 단장된 시골 풍의 여관이다. Doris Day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데 지난 12월에 왔을 때 둘러 보니 그녀 사망 후 다른 사람이 맡아 운영하는 모양이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조금 더 내려오니 요 근래 각광을 받고 있는 센트럴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 Paso Robles를 지난다. 전에 한번 둘러 와인도 사고 시음도 했었지. 소위 가성비 최고인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이다. 요즈음 내가 집에서 자주 마시는 맥주 '805'를 만드는 양조장도 지난다.

연료도 달랑거리고 화장실도 가야 하겠고, 배도 고과 들어간 곳이 Anderson Pea Soup 레스토랑이다. 12월에도 들려 점심 먹고 간 곳이다. Pea soup은 별로라 Danish sausage 샌드위치를 주문하였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평범한 맛, 참 별로였다. 다시 출발 지난 5월에 결혼 50주년 기념하러 여행 와서 묵었던 Santa Barbara를 지난다. 내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두 번째 고장이다. 시내에 들려 와인을 시음하고 갈까 하다 그냥 집으로 가기로 한다. 토요일에 운전은 하니 쉬지 않고 car pool lane으로 달려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가 조금 넘었다.

아,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가는데 우린 다시 남아 인생을 살아야지. 인터넷에서 주어 온 시구가 생각난다.

내가, 아직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 눈 속에  
난, 아직 고운 소녀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내게  
처음 손을 잡아준  
그 떨림으로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살아온 날의 모두를  
함께, 기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만으로  
아무것도 기억할 게 없습니다  
슬펐던 기억도  
아름다웠던 기억도

내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은 곧, 나의 삶이요  
우리는  
이, 늙어가고 있는 모습마저도  
서로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는 이유는  
/최영희



# SEX 사전

이 원 택 (71, 남가주)



나는 몇 년째 사전을 쓰고 있다.

근래에는 말의 뿌리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들춰보다가 이제는 내 나름대로 어원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영어의 evening은 'Eve'가 내려와서 당신을 즐겁게 해줄 때, morning은 당신의 거시기가 'horn' 같이 발기될 때라고 말이다.

Aphrodite는 Cronus가 아비를 거세 시키려고 Uranus의 자지를 잘라 바다에 던진 자리에서 일어난 'foam'에서 나왔으며 이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April하고도 일맥상통하고 모든 남성들이 갈망하는 Aphrodisiac(최음제)의 모태가 되는 말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Venus에서 파생된 말인데 원래는 사람 눈에 띄라고 '반짝이는 것'이란 뜻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별같이 반짝이는 미녀'가 되었고 또 모든 남성들이 '갈망하는 여자'가 되었다. 그런데 미녀만을 쫓아다니다가 venereal disease(성병)에 걸리기 쉽고 따라서 모든 venom(독)의 근원이 되는 말이다. 철학적 의미가 듬뿍 들어 있다.

V.D.란 말은 'Venus에서 유래한 병'으로 번역을 해야 옳으나 '성병'이 어감이 안 좋다고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T.D.: '씹하다 옮은 병')이라고 바뀌어 부르고 있는데 이런 상스러운 말보다 우리 선현들께서 쓰시던 <화류병: 꽃 같은 여자가 버들같이 나긋나긋 감기는데 그까짓 병이 대수런가!>이 비록 일본 말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더 고상하고 운치가 있는가(?)

영어에서 whore(갈보)보다 더 나쁜 말이 bitch(발정 난 암캐)란 말인데, whore는 피치 못해 하는 짓이고 bitch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미인들은 bitch 대신 bish

·bishh·beesh·bosh 등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으며 철자를 살짝 바꿔 놓은 betch란 말은 (귀여운 암캐)란 뜻도 들어 있다. Son of bitch란 아비를 알 수 없는 후레자식이란 뜻으로 아주 모욕적이기 때문에 brotch(흘레를 너무 붙어서 불알을 까야 할 놈) 내지는 brat(버르장머리 없는 놈)란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Butch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가? 이는 boi(boy)와 bitch가 합친 남성 남자 동성연애자를 뜻하는 '수년'이다. 이와 같이 어원을 캐 들어가다 보면 많은 단어들 이 sex와 관련된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원래 남·여를 구별해 놓는다는 section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sex란 우리말로 '남녀 칠 세 부동석'이라는 뜻이었는데 차차 남녀 칠십 세 합방→남녀 칠십 세 각방으로 의미가 달라져 왔다. 이와 같이 고상한 말이 의성어인 fuck(씹)과 교접이 되어 상업화하면서 의미가 많이 저속화 되어가고 있다. 모든 언어가 퇴폐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좋은 예이다.

지난번에 나온 '이원택의 미·한 변형 사전'을 받아본 한 고등학교 동창이 "이거 sex 사전 아니냐?" 했었는데, 개 눈에는 똥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한국의 진달래꽃 비슷한 azalea의 어원이 '마른 땅 꽃'이라는 것도 모르고 나는 열심히 물을 줬다가 몽땅 죽여버린 적도 있고 bolero란 스페인어는 <수줍음이 격정으로 변하는 과정을 나타낸 시적인 말>로 'sex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란 뜻이 포함됐다는 등으로 해설된 실용적·철학적 사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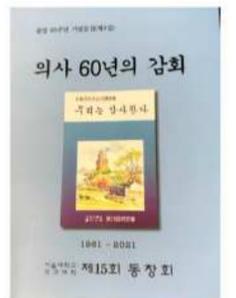
아차! 또 sex란 말이 나왔네, 제 버릇 개 주나! 이원택 사전은 <저질 사전>이러는데 이의가 없다.

p.s.: morning과 evening은 둘 다 정확한 어원이 알려지지 않은 말들임.

## 심영보(61) 동문 책 발간

서울에 거주하는 심영보(61) 동문의 의료인으로서 삶과 꿈을 담아 '즐거웠던 노년 세월'이란 제하의 수필집을 발간했다.

아울러 61년 졸업 15회 동기들의 글을 모아 졸업 60주년을 기념하여 9번째 수필집인 '의사 60년의 감회'를 발간하는 산파역을 하기도 했다.



# 나의 불순한(?) 생각 한글로 쓴 요소수

허 선 행 (64, 대뉴욕)

뉴욕지구에는 우리말 신문하면 한국일보와 중앙일보가 주축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집에서는 몇십 년 동안 한국일보만 구독해 왔는데 늙어 갈수록 우리말 신문에 더 가까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필죽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나(50년+) 그래서 우리말을 많이 잊었나 하면서 내가 모르는 우리말을 종종 읽게 되었다.

그중에서 요소수(尿素水)란 단어를 읽으면서 무척 당황하면서 처음엔 전혀 무슨 뜻인지 몰랐었는데 한자를 추가하니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요소수라고 적을 때 괄호를 치고 한자를 추가했다면 이런 혼동은 안 왔겠지 하면서 이런 사실이 나만이 당하는 일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나도 한글을 열심히 배웠다고 자부했는데(1950~1965년) 그리고 최현배 교수님을 비롯한 그 당시 저명하신 한글 학자님들의 말씀도 잊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오래된 옛날 헛소리하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하다.

그 후 많은 한글 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한글이 많이 정화되었으리라고 믿지만 과연 한글이 읽기 쉽고 쓰기 쉬운 글인가를 따져 보고도 싶어졌다. 그러면 서도 한글이 누구나 쉽게 읽고 쓰고 이해

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글자라는 것은 자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진정 궁금해진다. 그래서 수능 시험에 국어 과목이 제일 중요한 것도 한글의 중요성이 첫째이면서 한글을 제대로 가르치자는데 그 뜻이 있는 사실이었다. 오래전부터 서양 문명으로 범벅이 된 한국 사회는 말까지 잡탕이 되어간다면 너무 과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좋은 말을 두고도 꼭 영어 단어로 지껄이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런 현상이 시대 조류의 흐름만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우리말의 숫자 표시에는 어쩔 수 없이 한자와 순수한 우리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따로따로 나오는데 돈을 세거나 달력이나 날짜를 말할 때는, 예를 들어서 50원이면 오십 원으로 말하게 되고 십 원이라고 말하게 안되고, 1월 15일은 하나달(또는 첫째 달) 열다섯 날이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말의 역사적 발전을 보더라도 나의 주장은 기본 생활 한자는 한글(국어) 교육에 같이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실시되어 왔기를 바란다.

요소수 같은 말을 쉽게 이해 못 하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전문 용어(과학, 의학, 물질 등등)는 어쩔 수 없이 한자나 서양어를 병행해서 써야 한다고 본다(순수한 우리말이 나오든지 만들어질 때까지).

벌써 오래된 것 같지만 한국 젊은이들의 이름이 많이 변해왔다는 사실, 나 같은 보수적인 사람한테도 긍정적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성씨까지 한자와 병행 안 하면 우리의 뿌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후

손들이 조상의 성씨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이름에 관한 의견을 추가한다면, 한국 성씨를 영어로 쓸 때(여권) 같은 발음의 성씨는 다 통일하는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궁금해진다.

예를 들어 김 씨는 Kim, Gim, Ghim 등등, 노 씨는 Ro, No, Noh, Roh, Rho 등등, 주 씨는 Ju, Joo Juh, Choo, 이 씨는 Lee, Rhee, Li(주로 중국인), 추 씨는 Chu, Choo, Zu, Zoo 이렇게 되면서 변천해 가는 한국 성씨들이 바람직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우리의 본적이 아예 사라져 가는 것은 아닌지?

Koreanish American의 존재도 다른 xxxish American과 함께 오래오래 뚜렷하고 대등한 선구자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요소수가 준 교훈을 명심하면서 우리 언어(한글)도 되새겨 보게 되었지만 나의 요점(要點)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불순물도 재생(recycle) 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 인체 조직도 재생하는데 공장, 자동차에서 나오는 불순물은 물론이고 하늘에 있는 비구름도 재생 아닌 재분배한다면 지구상엔 우리가 살 땅과 옥토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다짐해 본다.



## Chime, (차임)

이 영 희(68 이천일부인)

실바람 불어오니  
차임이 아주작게 노래부른다.  
천천히 속삭이듯

알미늬의 짧고 긴대롱을 잡은 둥근판,  
세월이 흘러흘러  
휘어도 몇번 줄을 못박아  
고정한다.

실바람 실은 맑고  
청명한 속삭임.  
참! 아름답다.

센바람 불어오면 빠른 노래.

대소가 모두 모여  
두런두런,  
며느리들 아들들 이야기소리.  
시끌시끌,  
게임에 열오른 손자들.

자장가 삼아 할머니 할아버지  
곤히 낮잠에 빠진다.



# 새해의 소망

문 성 길(70, 남가주)

### 착한 사람들

전직 대사하던 분이 은퇴 후 계획을 묻는 이에게 대답은, 성당 근처로 이사해 매일 아침 일찍 성당 문을 열어놓는, 소위 '성당 문지기'였다는 얘기를 어느 지인으로부터 들은 생각이 난다. 우리들은 흔히 큰 것, 대단하다고 느껴질 것 같은 일들, 적선을 함에도 크게, 단체에선 맨 앞자리에 앉기를, 등등 해야 할 수 없을 정도, 그저 맑고, 크고, 높은 대단한 것 지향적인 것이 아닌지?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닌 것 같으나 그리 권장할 것도 못된다. 큰 것은 작은 것부터, 도량물이 합쳐,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종국엔 바다로 나가지 않는가!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연말이 되어 주치의 정기검사 진료를 받고 집으로 오다 한국 식료품점에 들렀다. 연말 장 보러 온 고객들이 많아 서인지 카트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 별수 없이 간이 손 카트를 들고 이것저것 물품(팔죽, 비지찌개, 우거지탕, 잡채, 산채나물 등등)들을 넣으니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좀 버거웠다. 한데 장을 보던 웬 젊은 여인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자신의 카트를 우리 부부에게 내어주며 자신은 몇 안 되는 물품이니 손수 들고 가겠다 하지 않는가! 우리의 간이 손 카트를 대신 주려 하는데도 영 고사한다. 아니 이런 친절할 젊은 분이 계시네! 한편 너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 우리가 아무리 젊은 척 건강한 척해도 젊은이들 눈에 별수 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늙은이가 아닌가 하며 집사람과 함께 웃었다.

이런 작아 보이는 것 같은 친절을 한 그분은 아마도 생각건대, 늘 자신의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친절과 도움을 주곤 했으리라 믿는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세상은 그래도 살 만하

고 아름다운 게 아닌가?

생각나는 일이 있다. 아마도 30년 이상은 됐을 성 싶다. 그 당시 펜실바니아에 사시던 큰 누님 댁을 다녀오다 워싱턴, 버지니아 중간 국도 95번 상에서 차 고장으로 난감해하고 있을 때 어느 반트럭을 가진 분이 내 차를 뒤에서 자신의 차로 밀면서 가까운 차 정비소에까지 데려다 주곤 인사도 받지 않고 떠나면서 하는 말, "훗날 어느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준다면 그걸로 전 됐습니다!" 이 말은 그 이후 내 인생에 금쪽같은 교훈이 되어 왔으나 얼마나 실천했는지는.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라는 것은 감동을 주는 말 한마디의 위력을 말하는 것이겠으나, 더 나아가 작은 친절이 이 세상을 얼마나 밝게 만드는가를 상상할 수 있겠다. 아귀다툼이 횡행(橫行) 하는 세상에서도 이러한 등불들이 존재하기에 세상은 굴러가며 살맛을 느끼는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줄로 생각한다. 자아, 새해에는 작은 친절을 열심히, 더 자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飛躍비약, Redondo Beach, CA, photo by SKMoon (12/26/2021)

### 波濤 파도

일기예보에 오늘은 비가, 그것도 바람을 동반한 꽤 큰비가 내린다고 하고, 어제는 화창한 금쪽같은 날씨가 해변 산

책을 나갔었다.

대부분 해변 산책자들은 잘 포장된 산책길을 걷지만 코로나 시대 사람 마주치는 것도 번거로워(아무리 야외이지만 사람 마주칠 때마다 마스크 착용-자발적) 필자는 바로 물가 가까이까지 가서 모래사장을 밟으며 걷는다. 때론 맨발의 청춘으로 무료 발바닥 마사지를 받으며 걷는다. 발밑 가까이에서 귓전으로 달음질쳐 오는 파도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특유의 약간 비린듯하기도, 또 아니기도 한 바닷물 냄새를 맡보는 쓸쓸함의 기쁨을 그 누가 알까?

더욱이,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파도들을 눈여겨보니 참으로 경이스럽기조차 하다. 거센 파도는 그렇더라도 비교적 잔잔한 파도도 파도는 파도라, 밀려 들어올 때는 파도 소리와 함께 남성 티를 단단히 낸다. 밀려 나갈 때는 살며시 미끄러 내리듯 조용하다. 햇빛에 영롱이는 고운 모래알은 마치 은쟁반의 금구슬 같다. 소리도 물론 조용하다. 여성적이라고나 할까! 한 쌍의 파도가 이리하다.

자연의 이치는 참으로 간단 명료한 것 같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調和와 均衡일 때 정상적 기능이 작동한다.

필자가 은퇴 의사이긴 하나 아직도 생명의 신비, 사후세계, 건강 문제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오늘 아침에 건강에 관한 강의(책 소개)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흥미 있기도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기도, 의료인들조차 언급을 회피하거나 잘 모르기도 하다고나 할까, 좀 쉽지 않은 제목인, "자율신경에 관한 그 모든 것"이었다.

자율신경계의 강화는 물론 조화를 최대한 어떻게 이룩해두느냐가 건강관리와 생명의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의 요체라고 할 수 있겠다.

육체를 기능면에서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양분한다. 思考와 골격 운동 등 가지적 기능은 중추신경계가, 무의식적, 자동적 미세한 운동, 즉, 신체 내 장기운동(심장 박동, 장운동 각종 괄약근 운동-조임과 이완 등등), 내분비물 분배, 자율신경계는 다시 양분하여 교감신경계

와 부교감 신경계이다. 낮에는 주로 교감 신경,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발하며 조화를 잘 유지할 때 기능은 정상적이 된다.

Reflex Sympathetic Dystrophy (반사적 교감신경 부조화증)이라는 아주 못된 난치병인, 수족 통증 병이 있다. 교감신경이 항상 흥분되어 있는 상태, 고로 통증 제어가 심히 어렵고 통증 정도가 극심하다. 대표적 예가,우리들이 잘 아는 대상포진 후 적기에 치료를 못 받았을 때, 특히 고령층환자 일수록 후유증인 '신경통'이 그것이다.

Hand Surgeon(손전문 정형외과의사)인 전도유망한 40대 초반의 의사가 손바닥의 교감신경 부조화증으로 그 오랜 수련 기간과 노력도 한갓 덧없는 물거품이 되어 환자 돌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보았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하늘과 땅, 밀물과 썰물, 남과 여, 좌와 우, 하여튼 세상은 상대적 조화의 세계라 할 것이며, 조화가 유지될 때, 건강도, 평화와 번영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역사회와 공동체, 국가도, 국제적 그 모든 것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서 중용(中庸)이란 말을 간단히 소개하면, 中이란 불편 불의(不偏不倚), 過不足과 부족이 없다는 뜻이며, 용(庸)은 平常, 즉 事理가 의당 그래야 할 것(이가원 지음 중용 편 참고).

젊은 늙은이, 늙은 젊은이  
중학교 시절, 국어와 도덕을 가르치시던 별명이 소위, '시어머니'라는 나이 지긋이 드신 선생님이 계셨다.

어린 우리들에게 잔소리로 들리던 말씀, 잔소리 하나하나가 지금 생각하면 모두 옳은 말씀뿐이었다고 생각된다.

"가래침 땅바닥에 퇴 퇴 뺨지 마라", "반드시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릴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 잔소리(?)였다.

선생님은 꽤 오래전 유행이었을 '당꼬마지' 무릎 아래가 좁아지는 바지를 입고 시고 다니셨는데, 그 당시엔 '나팔바지'라 해서 나팔 모양으로(다음면에 계속)

# 영혼과 꿈과 신의 왕국

Locus coeruleus는 영혼의 샘물인가

이수인(63, 남가주)

영혼이 있어? / 없어. / 있어. 봤는걸.  
 어릴 적 우리는 천일야화의 이야기를 읽었다. 알라딘의 마술램프에서 Genie (요정)가 솟구쳐 나오는 그림을 본다. 꼬리가 달린 Genie가. 몇 년 전 'The Sun'에 어떤 여인의 육체에서 혼이 떠나는 사진을 게재한 적이 있다. 꼬리가 달린 영혼이 모터바이크 사고로 죽어가는 여인의 사진이었다. 혼은 어디로 향했을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의 생김생김은 비슷하다.

임철우의 단편 '돌담에 속삭이는'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이 죽을 때 혼불이 먼저 알고 몸에서 빠져 나온단다. 사람이 아프면 밤에 지붕이랑 처마 밑을 유심히 봐야 해. 아흔 살의 노인이 있는데 죽기 바로 전날 밤중에 혼불이 빠져나오는 걸 목격한 사람이 몇 있어. 환하게 빛나는 수박만 한 초록색 불덩이가 지붕을 너울너울 넘더니 뒷산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돼지 꼬리 같은 가느다란 꼬리가 달렸단다. 어른 것은 크고 빛도 밝아서 하늘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제"

플라톤의 제자 Origen은 영혼이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인데 사람이 죽은 뒤에 천사들이 향료를 뿌린 수의에 써서 일곱 번째 천국(seventh heaven)으로 데려간다고 했다. 영혼불멸의 개념은 토마스 아퀴나스도 동의했고 교회는 좋아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였다.

Cogito ergo sum을 말한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의 이원론을 주장해서 인기를 얻었다. 두뇌의 중심에 있는 pineal gland가 밸브 역할을 해서 혼이 왕래할 수 있게 조정한다고 말했다. 데카르트의 pineal gland에서 멀지 않은 곳에 Locus coeruleus (LC, blue spot)가 위치한다. Nucleus pigmentosus pontis라고도

부르는 이 melanin granules는 두뇌에서 neurotransmitter의 하나인 Norepinephrine(NE)을 생산하는 중심지이다. 나는 이 LC가 영혼의 샘일 거라고 의심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영혼과 NE의 역할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LC에서 생산된 NE이 prefrontal lobe에 도착하면 나는 별떡 깨서 정신 집중을 한다. NE는 인식력의 유연성을 조절하고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creativity와도 관계가 있다. NE는 sleep cycle에도 역할을 한다. 우리가 꿈을 꾸는 REM sleep 동안 LC는 조용해진다. 대부분 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을 NE와 도파민의 유희를 통해서 재현되는 것이 꿈이라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LC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에서 먼저 쇠퇴한다. 나는 LC의 완전 쇠퇴는 영혼의 소멸을 가져올 거라 추측한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사라마구(Jose Saramago)의 소설 'Death with interruption(죽음이 정지된다면)'은 그의 다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인간 조건을 뒤집어 놓는 설정을 하고 인간들의 반응을 묘사한다. 소설에서 어느 도시에 갑자기 죽음이 정지된다. 사람들은 영구히 살 희망 때문에 환호를 한다. 다음 순간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등 모든 불편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옆의 도시에서 죽음을 밀수입한다. 죽음이 정지된 후 제일 먼저 통치자를 찾은 사람은 Cardinal 이었다. 죽음이 없으면 신의 왕국이 소멸되고 신은 축출당하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갈 수 없으면 똑같이 신의 왕국에 위험이 닥친다.

그러면 인간의 희망을 어디에 둘까. Ageing process를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 구글엔 deepmind AI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진정시킨다. 영혼이란 말이 생긴 것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들의 잔재주 때문이란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그저 잘 먹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하는 게 전부라고 믿는다. 현명한 인간은 자기가 갖지 않은 것 또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대신 자기가 가진 것을 살면 된다고 믿는다. 나는 욕심을 줄이기로 한다.

<전면에서 계속> 아래 도리가 아래로 내려 갈수록 넓어지는 바지가 유행이었다. 하시는 말씀, 때가 되면 유행은 돌고 돌으니 유행 좇아 허둥 되지 말라는 또 하나의 애교(?) 넘치는 시어머니 잔소리였다.

허리는 늘 꼳꼳하게 펴고 바른 자세이셨던 걸로 기억한다. 연세가 지긋하셨음에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활달하시고 나이 드신 다른 선생님들 티를 안 내시는 분이래 해서 졸업한 꽤 오래된 선배들로부터 전수되어오는 '늙은 젊은이 선생님, 시어머니 선생님'이셨다.

어제는 최근 홀로되신 한 분을 아주 오랜만에 뵈 기회가 생겼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여기서 간단히 소개한다면,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새댁 때 그렇게도 백옥 같은 피부에 청순하시던 모습이 웬 걸지며 수족 움직임에 크나큰 제약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노인 아닌 상노인으로 변하셨다. 꽃이 지면 시들어진다는 말이 무색, 너무 심하게 시든 느낌, 내가, 우리가 슬프니, 내색은 아니 하나 본인은 얼마나 슬프실까! 연세에 비해 지나치게 늙어버리신 것 같다. '젊은 늙은이'라는 말도 적절할 것 같지 않다. 늙었지만 나이에 비해 더 늙은이? 글썽 이 말이 적절할까? 몇 년 후 필자나 집사람도 이렇게 변할까?

여담 거리이겠으나 이런 것을 예견이라도 했듯이 1920-40년대 전성기 스웨덴 출신 미국 여배우 Greta Garbo (1905-1990)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갑자기 은퇴 후 세인의 이목을 벗어나 은둔생활을 했는데 그중 한 곳은 카리비안

군도(群島) 중 한 곳인 St. Barth라는 아주 조그마하지만 아름다운 섬이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좀 바꾸어 '애늙은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나이에 비해, 생각이 의젓하게 깊던가, 외모로 좀 나이 들어 보이던가, 좀 심한 경우 합죽하거나 주름이 좀 더 주렁주렁할 때, 그런 친구들한테 '애늙은이' 별명을 붙여 주곤 했다. '젊은 늙은이'의 대명사이겠다. 早熟型이 바로 이들 범주가 아닐까.

언제나 늘 화장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외출과 스포츠를 즐기는 시어머니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던 며느리가 자신의 고교 동창회에서 만난 아주 늙어버린 옛 동창의 모습과 연유(시부모 오랜 병간호에 폭삭 늙어버린, 효부임에 틀림없음)를 듣고 은후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 180도 바뀌져, 미움 대신 그처럼 고마울 수가 없어 효부상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비단 며느리에게 뿐이겠는가.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자연의 이치에 거슬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 나이 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건강관리(좀 더 나아가 재정관리도 어느 정도 하여)와 재정에 부담감을 되도록 덜어주는 것은 우리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겠다.

새해 새 결심 중엔 특히 보다 더 건강에 유념하는 식생활, 운동, 규칙적 생활 습관을 한층 더 확실히 하도록 합이겠다. 백세 시대에 '늙은 젊은이'로 '9988 234' 하도록 해봅시다!

# 신발 수선소 할아버지

서윤석(68, 버지니아)

굽주림과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  
 어마어마한 양의 눈이 전선戰線에 내렸다  
 동이 틀 무렵 총성이 멈췄다  
 밤새 밀려오던 그림자들도 사라지고  
 산 봉우리 위를 하얀 눈이 덮었다  
 팽과리, 피리소리도 끊기더니  
 흰 옷을 입은 적군들이 북으로 물러갔다  
 쌍둥 터널 \*지평리로 푸른 열차가 들어오고  
 포위망이 열린 고지에서는  
 새벽찬송이 울려 퍼졌다

네모난 가게 속에서 할아버지가 꿈을 꾸다  
 곡예사가 앞에 서고 슈 샴인 소년이 따라간다  
 "구두 닦어, 신발 닦어" 소리치며 간다  
 눈물이 섞인 그의 목소리 메아리치는 계곡에서  
 병사들이 새 신을 신고 살아나온다

반 세기 후, 해마다 이 때가 되면  
 \*\*옛 싸움터에 사람들이 모인다  
 거리에는 전동차가 정시에 섰다가 출발하고  
 수 많은 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물결로 흐른다  
 아직도 할아버지는 전우들의 신을 고친다  
 육이오 특집방송을 들으면서  
 주름진 손으로 이마의 구슬땀을 닦는다

## \*1951년 2월 13-16일 지평리 전투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에서 팽덕회가 지휘하는 수만 명의 중공군의 공세에 대항하여 리지웨이 장군이 이끄는 3천 명의 유엔군(미 2사단 23연대, 프랑스 대대)이 커다란 승리를 이룬 전투임. 1.4 후퇴를 역전하기 시작한 시점이 되었음.

유엔군으로 참가한 서준석 당시 서울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현재 시카고 거주 88세 신기로 할아버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 전투 기념관 (김성수 변호사 주관)



좌측부터 서준석과 그해 전사한 미국 병사 Big John from New York, Korean War Memorial 2021년 12월 24일

# The Aged Shoe Repair Man

Seo, Youn Seok

The hunger and fear,  
 the icy cold weather,  
 the deep snow covered the battlefields.  
 At dawn,  
 The noise of firing guns,  
 and the gong and pipe stopped;  
 as well as the dark shadows of  
 the massive flow of the Chinese soldiers  
 in their white clothes.  
 Through the double tunnels of Jipyung-li,  
 the train arrived with the happy song of the hymn.

The aged man of the square repair shop fell into his dream.  
 A shoe shine-boy follows the magician,  
 calling loud;  
 'Shoe Shine, Shoe Shine.'  
 Through the valley, the revived soldiers coming out alive  
 with their new shoes.

Fifty year passed,  
 this time every year,  
 both side's soldiers meet together  
 at the high point of the mountain,  
 with their painful memory.  
 The stream of cars is running in Seoul city.  
 The new trains arrive and leave on time.  
 Aged man still repairs the soldier's shoes  
 and wipes the sweat from his forehead,  
 and listens to the radio about the Korean War.



18세기와 19세기는 제국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이다. 산업혁명으로 근대국가를 건설한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의 약소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중 가장 힘이 센 대영제국과 러시아 제국은 지구촌 땅뻐기 시합을 했다. 이를 "Great Game(대경기)"라고 한다.

섬나라인 영국은 발달된 항해술과 강력한 해군력으로 대서양, 인도양을 휩쓸며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 광활한 식민지를 운영했다. 부동항이 없어서 바다로 진출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제대로 된 나라가 없는 동쪽으로 광활한 영토를 한없이 넓혀갔다.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쪽을 기웃거리지만 번번이 영국의 방해로 부동항 확보에 실패했다.

**아프가니스탄의 대경기**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뚫고 아라비안 바다로 나가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여 러시아의 남진을 방해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과해야 한다. 좁은 의미의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때로는 아프가니스탄도 이 지역에 넣기도 한다. 모두 소련에 속했던 나라들이고 중주국 소련이 그어 놓은 국경은 원주민들의 역사, 문화, 종교보다는 러시아와 소련의 국익에 따라서 국경이 그어졌다. 이로 인해서 요즘에도 민족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영제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파키스탄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1947년에 파키스탄은 인도에서 분리 독립했다. 1893년 영국령 인디아와 아프가니스탄 왕국은 영국이 설정한 두 나라의 국경선에 합의했다. 당시의 아프가니스탄 왕국은 영국에 외교권을 넘겨준 영국 보호국이였다. 이를 듀랜드 라인(Durand Line)이라고 한다.

듀랜드 라인은 파슈툰족이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남부 지역을 남과 북 반으로 나누어 통과 한다. 이 선은 서쪽으로 이란, 동쪽으로 와칸 회랑으로 연결되어 중국에 이른다. 와칸 회랑은 손가락처럼 나와 있는 중국과 접한 아프간 영토이다. 불시에 북쪽에 사는 파슈툰족은 아프가니스탄, 남에 사는 사람들은 인도(파키스탄)에 속하게 되었다. 요즘은 분쟁의 불씨가 된 연유이다. 한반도의 38선과 비슷하다.

1979년 소련은 아프간을 침공했다. 전 세계의 이슬람교도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무자헤딘이라는 이름으로 소련군에 게릴라전으로 저항했다. 미국은 군대를 직접 보내지 않고 중앙정보국을 통해 암암리에 무자헤딘을 지원했다. 전쟁은 무려 10년간 지속되었다. 1989년 소련군은 막대한 전비를 들이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는 1991년 소련이 붕괴되는 데 한몫했다.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다음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으로 혼란에 빠졌다. 많은 아프간 사람들은 근처 파키스탄과 이란 등으로 피신했다. 아프간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를 가져올 지도자를 갈망했다. 1990년대에 듀랜드 라인이 지나가는 파키스탄 북부지역에서 탈레반이 탄생했다. 탈레반은 파슈툰족어로 학생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수니 이슬람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활동했다.

북쪽에서는 수도 카불의 부패한 기득권층과 마약 밀매를 일삼던 군벌이 날뛰었다. 이에 비해서 엄격한 이슬람 규율을 앞세운 탈레반은 깨끗한 편이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은 탈레반은 빠른 속도로 전국을 장악했다. 1997년 탈레반은 카불의 무자헤딘 정부를 무너뜨리고 아



프간 정권을 장악했다. 아프간 사람들은 탈레반이 범질서를 확립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도로를 건설하여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슬람교의 샤리아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살인자와 간음한 자를 공공에서 처형하고 도둑질한 자의 손을 자르고 남자는 잘 다듬은 수염을 길러야 하고 여자는 바카로 얼굴을 가려야 외출할 수 있게 했다. 텔레비전, 음악, 극장을 금지했고 여자가 10세를 넘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무자헤딘이 소련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동안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무자헤딘을 도왔다. 무자헤딘 중에는 후에 알카에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미국, 파키스탄, 사우디의 도움을 받아 소련군과 싸웠다. 오사마 빈 라덴도 이 중에 한 사람이었다. 탈레반은 아프간을 장악한 후에 알카에다를 비호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도와주던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을 더 이상 원조하지 않았다. 그는 1988년에 알카에다를 창설하고 전 세계에 반미 테러를 시작했다.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의 사담과 전쟁을 했다. 사담이 쿠웨이트를 침략했기 때문이다. 사담은 이전에 이란과 전쟁을 했다. 미국은 사담 편이었다. 사담은 이라크의 소수인 수니 이슬람이다. 오사마와 사우디도 수니이다. 이란은 쉬아 이슬람이다. 미국은 사담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고 공군을 사우디에 주둔 시켰다.

오사마는 미국을 인피델(배신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를 감행했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아프간을 침공했다. 미국은 탈레반에게 정권을 빼앗겼던 북부 세력과 손을 잡았다. 패배한 탈레반 정권은 다시 자기들의 근거지인 파스툰 지역으로 돌아가서 게릴라전을 시작했다. 10년 동안 문둥이가 떠난 소련 대신 미국을 상대해야 했다. 북부세력 중심으로 친미정권이 만들어졌다. 소련군이 나간 후 탈레반에게 쫓겨난 부패 세력이 부활한 셈이다. 아프간 사람들은 다시 탈레반이나 부패 세력이나 둘중에 하나를 놓고 선택해야 했다. 아프간 사람들은 또 한 번 탈레반에게 기회를 주었다. 부패세력을 선택한 미국은 20년 동안 헛일을 하고 나가야 했다. 소련이 10년 미국이 20년 허탕을 쳤다.

강대국이 들랑날랑하며 전쟁을 하는 동안 아프간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한다. 사는 곳에 적군이 쳐들어 오면 도망가야 한다. 그들은 아프간 안에서 타향으로 새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거나 아니면 아예 외국으로 피난한다. 소련이 침공하던 197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아프간 피난민이 퍼져나갔다. 제일 가까운 파키스탄과 이란에는 아프간 피난민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 시리아 다음으로 국제 피난민이 많은 나라이다. 날라오는 포탄과 공중에서 떨어지는 폭탄은 사는 집을 파괴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한다. 아프가니스탄은 시리아보다 더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한다. 강대국의 놀이터, 대경

기의 운동장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 간다. 미군 철수 때 보여준 카불 비행장의 혼란은 이미 진행되던 지옥 탈출의 한 장면일 뿐이었다.

**조선에서의 대경기(Great Game)**

1885년 3월 30일, 러시아 군대는 아프가니스탄 왕국 군대를 공격했다. 편제(Panjdeh)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였다.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이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허수아비 왕국이었다. 왕국의 군대는 영국군이 훈련시켰다.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러시아군에게 전멸 당했고 편제는 러시아가 점령했다.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가 위협해졌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 점령을 완료했던 시기였다. 영국의 여론이 들끓었다. 영국은 바로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영국은 블라디보스토크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 조선 남단의 섬 거문도를 점령하고 이곳에 해군기지를 만들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Panjdeh Incident가 일어난 지 15일 후인

1885년 4월 15일 일본 나가사키에 주둔하고 있던 윌리엄 다울 해군 중장은 군함 3척을 이끌고 거문도를 점령했다. 영국 해군은 2년 동안 거문도에 머물렀다. 그동안 영국은 거문도와 홍콩, 상하이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물었다.

러시아가 향후 10년 동안 대한 해협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영국에 약속하고 영국 해군은 거문도에서 떠났다.

당시의 조선은 아프가니스탄과 신세가 비슷했다. 1882년 임오군란 때 대원군을 축출하고 고종과 민비를 구해준 청나라는 조선을 직접 지배하기 시작했다. 2년 후인 1884년 개화파와 일본이 작당하여 쿠데타(갑신정변)를 일으키자 청나라가 나서서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민비와 고종을 구출했다. 향후 10년 동안 조선은 사실상 청나라의 식민지였다.

1885년은 아프가니스탄은 외교권을 영국에 조선은 청나라에게 빼앗긴 상태였다. 조선 조정은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점령했다는 보고를 청나라 주재 영국 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 달 후에 받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협상도 청나라와 영국 간에 이루어졌다.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독립했지만 홀로 서야 했다. 일본은 조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대만, 유쿠 열도와 요동반도도 청나라로부터 양도받았다. 그러나 일주일 후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설득 시켜 일본이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삼국간섭). 일본은 도저히 당시의 초강대국인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었다. 두고 보자며 이를 악물고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었다. 청나라의 이홍장은 일본에 배상금을 주어야 했다.

러시아는 막대한 자금을 청나라에게 융자해 주고 만주 철도 부설권과 포트아터(요동반도 항구) 조차권을 차지하게 된다. 러시아는 철도 부설 보호 명목으로 무려 15만 명의 군대를 만주에 파견했다. 만주는 사실상 러시아 땅이 되었다. 러시아는 꿈에 그리던 부동항을 마련했다.



"SAVE ME FROM MY FRIENDS!" Bear; Russia and Lion; Great Britain

민비는 일본이 러시아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을 보고 러시아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친러파가 집권했다. 일본은 민비의 정적 대원군과 개화파를 끌어들이 민비를 제거했다. 그러나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한 고종은 더욱 러시아에게 의존했다. 러시아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에서 항구조차 등 많은 이권을 차지했다. 일본과 러시아는 조선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하며 공존했다. 38선, 39도 선에서 나누어 먹기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일본은 그동안에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했다. 미국과 영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모으고 스파이를 파견하여 러시아 정국을 엿보았다. 영국은 포트아터와 조선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해야 했다.

그레이트 게임은 드디어 동쪽 육지의 끝 조선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영국은 직접 러시아와 멀고 먼 동쪽 끝에서 러시아와 대결하는 대신 일본을 앞세워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로 결정했다. 1902년 일본과 영국은 동맹을 맺었다. 전 일본은 축제 분위기였다. 동양의 섬나라가 세계 최강국 대영제국의 동맹국이 되다니, 꿈같은 이야기였다.

1904년 일본은 러시아를 공격했다. 전쟁터는 한반도, 만주 그리고 서해였다. 한반도는 대경기의 운동장이 되었다. 영국은 러일전쟁 동안 전쟁 자금을 융자해주고 러시아 발트 함대의 항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영국 식민지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석탄과 물 등 중간 보급을 차단했다. 미국 자본가들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에 빌려주었다. 동양의 섬나라 일본은 청기스칸 이래 처음으로 서양 국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러시아는 한반도와 만주를 일본에 내주고 동북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Great Game은 영국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러시아 제국이 망하고 공산 대국 소련이 등장했다. 이차대전 말기에 소련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만주와 한반도를 침공했다. 이차대전으로 쇠잔해진 영국의 세계 경영을 미국이 떠맡기 시작했다.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을 우려했듯이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8선을 그어 서울을 포함한 남한을 소련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했다.

그 후 미국과 소련은 대영제국과 러시아제국이 벌였던 대경기의 전통을 이어받아 냉전(Cold War)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대결했다. 미국과 소련은 자국의 이념에 맞는 나라를 세계 곳곳에 만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련이 만들고 대한민국은 미국이 만들었다. 만주를 포함한 중국 대륙은 공산국가가 되었다. 소련은 그레이트 게임에 참여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거대한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소련은 그레이트 게임에서 영국에 패배하여 차지하지 못했던 아프가니스탄을 친 소련 국가로 만들려고 침략했다가 실패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붕괴한다. 소련 연방에 속했던 작은 나라들은 모두 독립하고 소련은 옛날의 러시아로 돌아갔다. 여기서 과연 그레이트 게임은 끝났을까?

한동안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푸틴이 등장했다. 독재자 푸틴은 옛 소련 영토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그레이트 게임은 유럽 연합과 러시아의 시합이 되었다.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러시아 주변 국가들은 유럽연합 가입과 나토 회원국가가 되려고 하고 푸틴은 주변국에 친 러시아 정권을 세우려고 가진 간교를 부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의 나라이다. 그래서 많은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러시아의 어느 곳보다 농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소련 시절에 방위산업이 가장(다음면에 계속)



# 격자 속의 꽃과 아령

서 량(69, 대뉴욕)

## 격(格)

병동 직원들과 성격(性格, personality)에 대하여 토론을 벌인다. 성격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결국, ‘한 사람의 특징적인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일컫는 것이라는 짧은 결론을 내린다.

성격은 기분, 생각이나 태도로 남들에게 전달되기 마련이다. 그렇다. 성격은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인생사다. 나는 “Personality is everything!” 하며 힘주어 덧붙인다. 당신과 나의 모든 대인관계에서 사실 ‘성격이 전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존중하는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연예 등등 제반 분야에 걸쳐 똑같은 이론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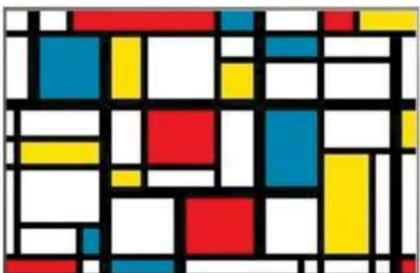
영어의 ‘personality, 성격’에 비하여 한자어로 인격(人格)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데 사전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라 풀이한다. 인품이라는 비슷한 말도 있다.

품격(品格)을 생각한다. 물건 품, 격식 격. 어떤 사람이 품격이 있어 보인다고 당신이 말하는 순간에 문자 그대로 그가 물건 취급을 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품(人品)을 직역하면 ‘사람 물건’이라는 뜻인 것을.

품격은 사전에 (1)물건의 좋고 나쁨의 정도 (2)품위(品位), 기품(氣品)이라 나와있다. 온통 물건 묘사 투성이! 품은 입이 셋이 모여 이루어진 회의문자로서 많은 사람이 와글와글 떠들어대면서 물건의 좋고 나쁨을 관정하는 모습이라 한다. 품격이 높은 상품을 고품격이라고 지칭한다. 그런 경우에 물론 가격(價格)이 높아지지.

상품성(商品性)이 농후한 묘자를 빼고 격만 쓰는 수도 많다. 격이 높다, 낮다 하는 식으로. ‘나무 木’에 ‘각자 各’이 합쳐진 ‘격식 格’으로 시작하는 격상(格上), 격하(格下), 격조(格調) 같은 말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체크 무늬’라 부르는 반듯한 네모들이 나란히 이루는 격자(格子) 무늬!

‘격자판’을 뜻하는 영어로 ‘grid’라는 단어를 근래에 자주 듣는다. 당신은 옛날 화학시간에 배운 멘델레예프의 원소 주기율표를 기억할 것이다. 그 주기율표처럼 보이는 엑셀 첨부파일의 질서정연한 네모 칸에 갇혀진 자신의 이름을 직장서 하루가 멀다 하고 확인하는 당신이 아니기를 바란다.



범죄영화에서 사이코패스가 이름, 생년월일, ‘Social Security Number’ 등을 삭제해서 수사당국의 격자판에서

사라졌을 때, “He is off the grid.”라고 강력계 형사는 뇌까린다. 온라인 해킹을 당하기 쉬운 요즘 세상에 그 사이코패스는 무사태평하다.

그만큼 우리는 조지 오웰의 문제소설 ‘1984년’에서 예견한 대로 ‘Big Brother’의 격자판을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것이다. 내가 알고 기억하는 나보다 ‘Big Brother’의 기록이 더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재미있다. 자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구글검색을 해보라. 정답이 나올 것이다.

어원학을 다 떠나서 ‘personality’를 ‘사람다움’이라 옮길까 한다. (‘-al’로 끝나는 형용사는 ‘-같은, -다운’이라는 뜻.) 성격, 인격처럼 ‘격식 格’의 뉘앙스가 전혀 없는 단어다. 격은 동양 특유의 수직적 사고방식이 철철 넘치는 낱말이다. 가격, 물건값의 높고 낮음과 다르지 않다. 중력 때문에 사과가 나무에서 툭, 떨어지듯 격도 그렇게 떨어진다. 우리는 항상 위아래가 관건이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속담은 어떤가. 찬물도 격이 높은 윗사람이 먼저 마신다는 생활속담이다. 그렇다면, 허를 데기 쉬운 뜨거운 물도 윗사람이 먼저 마시겠다고?

## 꽃의 밋

옛날 정신과 수련의 시절에 어느 우울증 환자에게 “Keep your chin up! (턱을 치켜 드세요! - 힘 내세요!)”라 한 적이 있다. 그 통명스러운 60대 여자는 그런 말은 자기도 할 수 있다면서 발칵 화를 내면서 방을 나가버렸다. 낮이 뜨거웠다.

지도교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건 마치도 우울증 환자에게 우울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충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그가 말한다. 내과의사가 배가 아픈 환자에게 아프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싸가지 없는 말을 한 셈이다. 불행한 사람에게 행복하세요! 하는 싸구려 입버릇처럼.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찾아왔다. 나중에 ‘will power, 의지력(意志力)’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입에 올렸다. 그게 뭘지 모르다며 설명을 해달라 해서, ‘will’은 의도(意圖), 즉 무엇을 원하는 상태라 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는 예를 든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까지 침을 튀기면서 설명한다.

한자어 ‘뜻 意’를 생각한다. 의도, 의지 외에도 의사(意思), 의견(意見), 의욕(意欲), 의의(意義) 같은 말들이 입에 붙어 다닌다. 우리는 늘 자신의 생각과 견해와 욕심과 욕음을 주장하고 싶은 법이다.

의미(意味, 순 우리말로 ‘뜻’)에 ‘맛 味’가 들어간다는 사실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그러니까 의미라는 한자어는 대뇌기능이 아니라 미각이다. 말초감각 중에 하나다. 사물의 뜻을 알기 위하여 꼭 그렇게 자장면이나 짬뽕처럼 무엇이든

단무지를 곁들여 먹어봐야 된다는 재래식 중국적 사고방식이다.

사물의 의미라는 것은 개개인의 입맛처럼 주관적인 기능에서 태어난다. 삼라만상의 의미는 팩트가 아니라 미각적(味覺的) 해석일 뿐. 그것은 개인의 심리상태이기도 하다. 물리학을 제외한 우주의 객관적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물은 무의미하다. 무색, 무취, 무미(無味)!

‘뜻’에 해당하는 ‘meaning’은 좀 다르다. 13세기에는 ‘기억하다, remember’ 라는 의미였다. 뜻은 연상작용에서 온다. 전인도유럽어에서는 의도, 의견, 생각이라는 말이었으니 이 또한 주관적 심리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철학의 거성, 칸트 (1774~1804)의 ‘thing-in-itself, 물자체(物自體)’ 개념이 당신과 나 사이에 훌륭히 거론된다. 내가 은하수에 고추가루라도 뿌려 맛보지 않아도 내가 자는 사이에도 은하수는 자체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이 은하수에 애써 부여하는 의미는 철두철미하게 무의미하다.

김춘수 (1922~2004)는 그의 대표 시

‘꽃’에서 꽃의 이름에 큰 의미를 하사했다. 이름이 없는 꽃은 한갓 폼짓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1976년도 저서 ‘의미와 무의미’에서 그는 시의 무의미성을 성심성의껏 선포한다. 구태의연한 시적자아의 설렘을 떠나서 언어의 즉물성(卽物性)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괜스레 물자체, 즉물성 같은 어려운 말을 해서 당신에게 좀 미안하다.

초현실주의 시류(詩流)가 나를 휩쓴다. 개꿈, 앞날을 내다보는 예지몽, 꿈을 각색하는 자각몽, 등등 모든 꿈과 초현실은 내게 각별히 유효하다. 김춘수가 초현실주의의 텃밭이었다는 생각을 간간한다.

옛날 그 환자에게 니체의 명언을 풀이해서 설명해줄 걸 그랬다. “삶은 고통이다. 생존한다는 것은 그 고통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다.”라고. 니체가 신의 사망선고를 내린 후 삶의 니힐리즘에 대항하는 그의 초인사상을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줄 걸 그랬지, 정말.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찾아왔다. 나중에 ‘will power, 의지력(意志力)’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입에 올렸다. 그게 뭘지 모르다며 설명을 해달라 해서, ‘will’은 의도(意圖), 즉 무엇을 원하는 상태라 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는 예를 든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까지 침을 튀기면서 설명한다.

## 아령의 흥터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2021년 11월 현재 전시중인 ‘Surrealism Beyond Borders’를 관람했다. ‘경계 없는 초현실주의’의 황홀한 시간!

프랑스 시인, 정신과의사 앙드레 브르통 (Andre Breton, 1896~1966)이 1924년에 선포한 ‘초현실주의 성명서’를 곱씹는다. 그의 폭탄 선언은 시(詩)에서 출발하여 모든 예술 분야에 걸쳐 전세계에 들불처럼 번졌다. 브르통은 당시 프로이트가 주창한 ‘무의식’과 그의 획기적인 논문 ‘꿈의 해석’에 큰 영향을 받았다.

초현실과 꿈은 무의식의 텃밭에서 피어나는 의식의 꽃이다. 초현실의 뿌리에는 무의식이라는 본능이 도사리고 있다. 초현실에는 심리적 안전을 피하는 방어

쓰는 지역과 우크라이나 말을 쓰는 지역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레이트 게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나 한반도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일했던 아프간 사람들 371명이 수송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다. 이들은 한국말을 배우며 한국에 정착할 준비에 여념이 없다는 소식이다. 아프간과 한민족은 러시아와 영국이 벌였던 그레이트 게임의 피해자라는 공통

기전과 성적본능의 즐기와 잔가지들이 숨어있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수면 아래에 잠겨서 맨눈에 보지 않는 빙산아랫도리의 비밀을 파헤친다.

초현실은 꿈의 탁본(拓本)이다. 비석, 기와, 기물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에 종이를 문질러 떠낸 사본(寫本)이다. 초등학교 때 자주 나갔던 사생(寫生)대회가 그랬고 지금도 핸드폰으로 찍어대는 사진(寫眞)이 또 그렇다. ‘베낄 寫’! 꿈과 초현실은 현실을 베껴 복사한다. 영화처럼 복사체는 실체가 아니다.

꿈에는 전위(轉位, 자리바꿈)라는 현상이 있다. 본능 속에 파견 나와있는 검열당국이 꺼려하는 출현자나 배경을 바꿔치는 수법. 이 디펜스는 생시의 언어 생활에도 확실히 적용된다. 직설을 피하는 완곡한 말 습관, 섹스를 언급하는 대신 ‘같이 잤다’는 표현이 좋은 예. 당사자는 물론 듣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애타적(愛他的) 아량이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노린다. 이른바 낯설게 하기, 데페이즈망(depaysment) 기법이다. 일상적 사물에 적용되는 상식을 뒤엎고 생뚱맞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시에서는 전위와 데페이즈망 둘 다 자유자재로 쓰이는 것이 재미있다.

꿈도 예술도 시도 드라마가 있어야 제격이지. 그래야 나라는 내 꿈의 관람자와 미술관 방문자와 시 독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법. 애매모호한 추상은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구체성을 추구한다. 비주얼(visual, 시각적) 감각이 강한 자극을 제공하는 구체성!

내가 좋아하는 낯설은 이미지의 대가, 벨기에의 초현실과 화가 르네 마그리트 (Rene Magritte, 1898~1967)는 이렇게 말한다. - “상징적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이미지에 담겨진 시(詩)와 미스터리를 파악하지 못한다.” 얼마나 통쾌한 발언인가.

꿈은 여러 요소를 응집한 압축과일이다. 알쏭달쏭한 프레젠테이션이다. 꿈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초현실을 감추고 있다. 자꾸 더 캐물으면 보충설명을 하는 작화(作話, 말짓기) 증세를 내보인다. 어차피 꿈의 어원은 ‘꾸미다’라는 학설이 유력한 터. 거짓 꿈도 꿈이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다녀온 그날 밤 꿈에 아령을 보았다. 고등학교 때 손

에 잡고 흔들던 그 아령이 큰 흥터가 보인다. 아령을 하고 싶은 욕망을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불현듯 다음날 아마존에서 아령을 주문했다.

아령이 배달된 며칠 후 ‘아령과 비둘기’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썼다.

-- (전략)... 아령의 흥터에 심하게 신경을 쓴다/ 아령은 내게 막강한 권리를 부여한다/ 아령이 나를 서서히 장악한다 / 아령 양 가슴에 이윽고 튀어나오는 알통/ 회색 바탕에 무지개 빛 맴도는/ 사나운 비둘기 한 마리 푸드득 날아가는 순간에... (후략)

(이 세 편의 수필은 근래에 뉴욕중앙일보 서량의 고정 컬럼 ‘잠망경’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 편집자)

점을 가지고 있다. 약소민족의 비극은 무엇보다도 나라가 힘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민은 국가를 떠나는 수밖에 없다. 국가가 제구실을 하려면 부국강병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어느덧 선진국이 된 한국은 약소국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을 돕고 있지 않은가?

장하다. 대한민국!

〈전면에서 계속〉 발달된 나라였다. 더구나 러시아 다음으로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로켓 엔진도 대부분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은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다.

몇 년 전 푸틴은 크리마아를 점령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에 10만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다. 서방은 동독 이동으로 나토의 세력을 확장하지 않기로 러시아에게 약

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소련 연방국들의 나토 가입 열망은 푸틴의 세력 확장 욕망과 상치되어 충돌의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러시아에게 넘길 수도 없고 잡아 놓자니 러시아와 충돌이 우려되는 뜨거운 감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처럼 두 쪽이 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러시아어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누가복음 16장 8절

라인홀드 니버는 20세기 중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신학자, 정치 철학자, 저술가였다. 그는 1948년 타임 잡지 25년 기념판의 표지 인물로 선정될 만큼 당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1950년대에 심한 뇌졸중으로 언어조차 장애가 오고 왼쪽 팔도 잘 못쓰는 상태였음에도 1971년 사망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하였다. 사후 그는 일반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으나 2008년 대통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가 뉴욕 타임스 기고가 David Brooks와의 인터뷰에서 라인홀드 니버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 정치 철학자라고 언급한 게 계기가 되어 유명한 영화제작자 Martin Doblmeier가 제작한 “미국의 양심: 라인홀드 니버 이야기”란 기록영화가 2017년에 PBS를 통해 방영되면서 라인홀드 니버 연구열이 오르게 되었다.

라인홀드 니버는 독일에서 이민 온 목사 Gustav Niebuhr의 첫째 아들로 1892년 6월 미주리 주 Wright 시에서 태어났다. 라인홀드 니버는 세인트루이스 근교에 있는 Elmhurst 대학에 입학 1910년에 졸업했다. 독일어만 쓰던 집에서 자라난 그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공부할 수 있었으나 졸업할 때는 졸업생 대표(Valedictorian)가 되었다. 그는 이어서 예일 신학대학에 입학했는데 도중 아버지가 사망하자 1913년 4월에서 9월까지 임시 목사 역을 하고는 1914년에 졸업, 신학학사 학위를, 그 이듬해엔 문학석사 학위를 획득했다. 그는 평생 박사과정을 밟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1915년에 사제 서품을 받자 독일 북음성교 이사회는 그를 디트로이트 베델 교회로 파견했다. 그가 부임했을 때 18세대이던 이 교회는 그가 떠날 때는 거의 600세대로 성장했다. 이때 디트로이트는 남북전쟁 후 남부에서 백인과 흑인들이 직장을 찾아 밀려들자 그들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헨리 포드에 대한 비판, 나아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 더 나아가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타당성을 한때는 인정하기도 했다. 교단에서의 설교와 시의회에서의 그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자 유니언 신학대학 총장은 그를 교수로 초빙할 것을 교수회의에 요청했다. 교수진들은 박사 학위도 없는 그를 초청하는데 주저했으나 근소한 차로 수락했다. 이렇게 간신히 교수가 된 그의 강의에 학생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어떻게 그를 학교에 남아있게 할 것인가로 문제가 전환했다.

1928년에 교수 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공황 중인 1932년에 도덕적인 인간과 부도덕적인 사회: 윤리와 정치의 연구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를 출간했다. 이 책을 코넬 웨스트(Cornel West)는 “오늘날에도 기독교 윤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틴 루터 킹 2세는 이 책이 그의 인권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의 지침이 되었다고 말했다. 20세기 초에 진보적인 신학자 사이에서 일어났던 성경 구절에 따라 생활하면 지상낙원을 이룩할 수 있다는 소위 사회복음주의(Social Gospel)에 니버도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으나 후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 관계에서 자기 이익 중심적인 권력과 부의 추구는 가장 중요한 면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개인과는 달리 단체(Society)에 의한 불의는 힘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책이 이 “도덕적 인간과 비

도덕적 사회”다. 신학자가 필요하다면 ‘폭력’도 써야 한다고 하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쪽 불을 맞으면 다른 쪽 불을 내밀라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갔나?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가 자신해서, 설득에 의해 권력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그는 판단하게 되고, 비폭력 운동도 희생자가 생겨야만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도에서 목화가 오지 않으면 맨체스터의 어린애들이 굶는다. Rosa Parks로 인해 흑인들이 버스를 안 타자 버스 운전사들이 흑인도 동등하게 대우해 주라고 정부를 압박한다. 이는 흑인을 사랑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잘 설명한 게 이 책이다.

## 미국의 양심 Reinhold Niebuhr (1892-1971)

이희백(61, 시애틀)

nation)이 되어 자유진영의 지도자가 되자 미국인들은 종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들은 특별하다(American Exceptionalism)는 생각이 더 확고 해졌다. 미국인들은 건국 초기부터 자기들은 항상 미덕(virtuous)의 나라이며 자기들의 목적은 숭고하기 때문에 타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미국은 신이 선택한 새로운 나라(New Israel)라고 자처하고 있었고 따라서 악과 싸우는 자기들은 무엇을 하든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다. ‘악’인 소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써서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했다. 니버는 이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라고 반대하고 자기만이 선이라는 자만



일차대전 후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니버는 전쟁은 절대 해서 안된다는 철저한 평화주의자가 되었다. 그는 이차대전 직전 루즈벨트의 전쟁 준비를 위한 국방예산 증가를 맹렬히 반대하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 게 전쟁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고 히틀러의 욕망이 노골화되자 미국의 이차대전 개입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월남전은 시초의 지지에서 의롭지 못한 전쟁이라고 반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자기는 생전 처음으로 미국인임이 수치스럽게 느낀다고 했다. 그럼에도 린든 존슨은 1964년 그에게 대통령 자유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했다.

그의 평화주의 사상은 사회현실을 목격하면서 흔들리게 되었다.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못하기 때문에 보다 낫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제성(coercion) 또는 전쟁을 포함한 폭력도 불가피 할때가 있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고 사회주의와 평화주의에 대한 신념은 무너지게 되었다. 사랑과 설득은 개인간에는 통하지만 공동체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공동체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공동체가 공동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존재가치를 잃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폭력을 써야만 유지되어야 한다니 이러한 그의 변신은 많은 지지자로 부터 배반자란 비난을 받게 만들었다.

2차대전후 조지 케넌(George Kennan)은 그에게 전후 냉전 정책 수립 위원회의 일원이 될 것을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1952년에 미국 역사의 아이러니(The Irony of American History)란 책을 출간했다. 보스턴 대학 외교, 군사 전문가인 Andrew J. Bacevich Jr.는 이 책은 지금까지 미국 외교 정책에 관해 기술된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니버는 왜 공산주의를 막아야 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가를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모든 악은 사유재산 소유자의 권력 때문이고 따라서 사유재산을 철폐하면 모든 악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만이 ‘권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바로 그 ‘재산’을 경영하는 계급이 생기고 이 계급은 ‘재산’과 ‘경영’을 동시에 소유하는 더 큰 권력을 소유함으로써 인해 더 큰 악이 출현한다. 민주주의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보다 나은 점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차대전후 미숙한 미국(innocent nation)이 갑자기 성장한 강대국(adult

심에 빠질 때 미덕은 악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여러 예를 들어 설명했다. 나치즘도 그중의 하나다. 극단적인 민주주의의 찬양은 변형된 나치즘과 다름이 없다고 까지 말했다. 그는 특히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를 자기편에 끌어드릴 때 발생하는 위험을 지적했다. 자기 판단이 신의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적인 겸손에 대한 하나의 근본적인 요점은 궁극적인 판단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있다. 그리고 만일 내 판단을 신의 판단으로 동격화 시킬 때 나는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다 (One of the fundamental points about religious humility is you say you don't know about the ultimate judgment. It's beyond your judgment. And if you equate God's judgment with your judgment, you have a wrong religion).

정치적 목적으로 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을 자기의 당파적인 가치나 목적을 위한 우군으로 주장하는 경향은 모든 종교적 광신의 원천이다. (The tendency to claim God as an ally for our partisan value and end is the source of all religious fanaticism).

공산주의는 신을 부인(Godless)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신, 변증법적 역사관(Didactic History)을 맹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정치와 종교가 결합했을 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도덕적인 인간과 부도덕적인 사회”가 출간 당시(1932년) 니버는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진보적인 개신교 지도자들은 그의 강한 마르크스주의에의 경향, 진보진영을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어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가르침을 경시하는 그는 아무런 교회 신학 이론도 없다고 공격했다. 그리고 인간을 개심시키는 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도 없는 그가 쓴 책이니 거기에 어떤 혁명적인 현실주의는 있을지언정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비난에 대해 그는 더 합당한 대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예수는 단순히 종교적인 이상을 제시했을 뿐이고 그의 가르침은 현실 정치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예수는 복음이 규정하는 윤리적 ‘이상’을 제시했을 뿐이고 심자가는 인간의 죄에 관한 신의 심판과 신의 용서와 윤리적으로 사랑의 법칙의 ‘중요성’과 ‘불성취성’의 상징일 뿐이다. 인간은 신의 형상이었으나 이기심과 권력으로서의 의지(will to power)로 인해

훼손되었다는 것이 니버의 ‘빛의 아이들과 어둠의 아이들’의 신학적 핵심 논리이다.

라인홀드 니버는 ‘빛의 아이들과 어둠의 아이들’에서 어둠의 아이들이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이익을 넘어서는 어떤 법칙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빛의 아이들이란 자기 이익을 보다 더 높은 법률에 복종시키는 사람들과 정의를 했다.

현대 미국 자유주의자들은 John Locke, Adam Smith, Jean Jacques Rousseau, Thomas Paine, Jeremy Bentham, William Godwin, Johann G. Fichte,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그리고 진정으로 믿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영적인 사촌이라고 니버는 주장했다. 이들은 전부 ‘빛의 아이들’로서 ‘자기 이익’과 ‘일반 이익’의 충돌을 최소한의 간섭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산 계급 혁명 후에는 국가가 필요 없다고까지 믿었다. 니버는 이들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이익을 넘는 도덕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나 이들은 전부 자기 이익 추구의 사회의 힘을 모르는 순진한 자로 보았다. 자기 이익에 너무나 충실하고 자기 이익에 반하는 도덕적 법률을 무시하는 ‘어둠의 아이들’의 ‘지혜와 꾀’를 ‘빛의 아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흠스와 마키아벨리를 ‘어둠의 아이들’의 예로 들었다. 나치와 파시스트도 이에 포함시켰지만 마르크스주의 신봉자는 처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후에 포함시켰다. 니버는 이러한 자기의 방향 전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당시에는 나쁜만 아니라 유력한 신문 잡지들도 스탈린을 ‘Uncle Joe’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하고 반문했다. 스탈린은 20세기에, 나폴레옹은 18세기에 속한 똑같은 진보적인 몽상가(Liberal Dreamer)로 그는 보았다.

현대 진보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도덕적 가치 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둠의 아이들’은 권력을 추구하는데 교활하고 부도덕하니 진보주의자들은 정치와 역사에서 권력으로서의 의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증법적 이론에서 니버는 그의 유명한 경구(Epigram): “정의의 위한 인간의 능력이 있기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부정의로 향하는 인간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Man's capacity for justice makes democracy possible, but man's inclination to injustice makes democracy necessary)”가 나왔다.

자유민주주의가 도덕적 이상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하지만 인간들의 이기주의와 권력으로서의 의지를 억제하는데 가장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방어할 가치가 있다고 한 것이다. 이어서 그는 민주주의란 풀 수 없는 문제를 근사한 해결책을 발견하는 방법(Democracy is finding proximate solutions to insoluble problems)이라고 정의했다. 즉 민주주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푸는데 가장 ‘근사한’ 해결책을 발견해 주는 방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1944년에 그는 그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논점을 경제적 민주주의로 연결돼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노동자, 공동체, 그리고 사회 소유제를 향상시키지 못하면 자본주의 계급이 정치제도를 차지하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전복되고 말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UNION for DEMOCRATIC ACTION에 참여해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힘썼다. 기독교 신학자로서 정부 정책에 참견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등록상표 (다음면에 계속)



# 6.25의 기억

노영일(68, 시카고)



쿵. 쿵. 쿵. 대포 소리가 점점 가까워왔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일부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도발해 왔으나 용감한 우리 국군이 단호히 물리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시민은 조금도 동요되지 말고 생업을 계속하라고 했다. 곧 북한 괴뢰군은 38선 너머로 쫓겨날 것이라고 했다. 단발 비행기에서는 같은 내용의 빠라를 연신 뿌려댔다. 나는 그때 국민학교 일학년 때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철부지 시절이었다. 골목마다 뛰어다니며 빠라를 주워모으는 것이 재미있었다.

저녁이 되자 부모님들 표정이 근심에 싸인 듯 보였다. 아버님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그때 만삭이던 어머니와 누님, 나, 그리고 아직 걸음마도 못하던 누이동생을 먼저 한강 건너 노랑진에 있는 친척 집에 내려보냈다.



그날 밤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광 소리가 나더니 섬광이 하늘에 번쩍였다. 그리고 계속 광 광 소리가 나며 불꽃이 치솟았다. 어린 마음에 신나는 구경거리였다.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 다리가 폭격을 받고 있었다. 그때의 장면이 내 뇌리에 생생하게 각인되었고 아직 내 평생에 그런 엄청난 불꽃을 다시 본 기억이 없다.

날이 새자 한강 다리가 끊어진 것을 알았다. 어머니 얼굴이 초주검이 되셨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 용산 집에 계셨는데 삼시간에 이산가족이 되어 버린 것이다. 만삭인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찌하여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셨을 것이다. 나는 골목길에 빠라를 주으러 나갔다가 죽을 뻔했다.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곤두박질치며 내려오더니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불과 일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총알 자국들이 깊이 파여졌다. 질겁을 하여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친척들은 피난을 간다고 집을 꾸리고 길을 나섰다. 어머니도 만삭인 몸이 누이동생을 업고, 머리에 짐보따리를 이고 내 손을 잡고 따라나섰다. 열두 살 되던 누님도 조그만 보따리를 들고 따라왔다.

남으로 향하는 피난민 행렬은 길고 길

어 시작도 끝도 볼 수가 없었다. 그중에는 패잔병 같은 군인들도 더러 섞여 있었다. 그래서인지 가끔 전투기 편대가 날아와 피난민 대열에 대고 기총소사를 가했다. 총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부분 재빠르게 길가 논두렁에 엎드려 총알을 피했다. 비행기 소리가 멀어지면 다시 길로 올라와 걷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면 빈 초가집이나 옹기전가마 같은 곳을 찾아 들어가 잠을 잤다. 그때는 빈대들이 많아 신문지로 도배해 놓은 초가집 벽에는 빈대를 눌러 죽인 핏자국이 추상화를 그려 놓은 듯 질펀하였다. 그 난리 통에도 주먹밥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야구공만 한 보리밥 덩어리에 소금을 뿌린 것이 전부였다. 굶주린 배에는 그것도 꿀맛이었다. 그 더운 여름날 목마르다고 보채는 우리 어린 것들 때문에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수원까지 걸어 내려왔다. 그러다가 피난민들 북새통 사이에서 아버지를 너무나도 우연히 만났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아버지는 고 이문호, 나건영, 허인목 교수와 대학 동기동창이시다. 전쟁이 나기 전 아버지는 주한 미국 대사관 의무실장이셨다. 서울에 남아 있었다면 틀림없는 총살감이었을 것이다. 한강 다리가 끊어지는 날 밤 독섬 근처에서 간신히 거룻배를 얻어 타고 캄캄한 밤중에 한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한다. 노랑진 친척 집에 가 봤으나 우리 식구들은 이미 피난 가고 없었다. 수원까지 걸어 내려와 주인 없는 빈 여관에서 잠깐 피곤한 눈을 붙이고 나오는 길이었다고 하셨다. 아버지를 만난 우리 식구는 목숨을 건진 듯 기뻐했다.

수원역은 이미 폭격을 맞아 부서지고 삶은 오징어같이 빨강게 된 화물 열차와 박격포탄들만 여기저기 뒤굴고 있었다. 마침 남행열차가 하나 있어 피난민들이 아귀다툼으로 올라탔다. 우리 식구는 열차 지붕 위에 겨우 올라탈 수 있었다. 까딱 잘못하면 굴러떨어질 수도 있었다. 서로 움켜잡고 남쪽으로 달렸다. 터널이 오면 모두 엎드려 하고 코를 막았다. 열차에서 내뿜는 연기가 숨통을 막았다. 터널을 지나고 나면 얼굴이 새까매지곤 했다.

그렇게 부산까지 내려갔다. 처음에는 무슨 큰 창고 같은데 피난민 수십 세대가 밀집해 들어 살았다. 그때는 고등어가 제일 흔하고 썩 생선이어서 매일 지겹게 고등어구이만 먹었던 생각이 난다. 누님은 좌관에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카멜 담배,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레이선 강통에 든 과자, 초콜릿 등을 메고 다

니며 팔기도 했다. 동네 아이들은 “서울내기 다마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 하며 놀려댔다. 담벼락과 전봇대에는 각종 포스터들이 즐비하게 붙어 있었다. “북진통일”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등 등 반공방첩 포스터들이었다.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쳐 올라갔다고 했다. 우리 가족은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서울은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그때 우리 집은 용산 미군부대와 철조망 하나 사이에 두고 붙어 있었다. 커다랗던 본채는 다 폭격 맞아 부서졌고 반쯤 성한 바깥채에 온 식구가 구겨 들어 살았다. 넓었던 마당에는 포탄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고 반쯤 타버린 탱크도 있었다. 부모님들은 위험하니 마당에 나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호기심에 나가서 탱크에도 올라가 보고 즐비했던 대포알 탄피며 삶은 오징어 같은 박격포탄을 가지고 논 기억도 난다. 조부모님들은 아무리 빨갱이들이라도 노인네를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집을 지키겠다고 하시며, 아버지나 빨리 피하라고 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조부모는 서울에 남아 온갖 고초를 당하셨다. 반동 아들을 어디에 숨겼느냐고 잔인하게 때리고 못살게 굴어 할 아버지는 얼마 못 가 돌아가셨다.

겨울이 되자 중공군이 참전하여 다시 쳐내려왔다. 우리 식구는 다행히 화물 열차를 얻어 탈 수가 있어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다. 화물 열차에는 프린트 할 때 쓰는 기름종이가 많이 쌓여 있었다. 그 기름종이에 주먹밥을 싸서 먹던 기억이 난다. 콩보리 주먹밥은 피난민의 유일한 식량이었다.

부산 피난 시절 아버님은 잠깐 개업을 하시다가 해군에 입대하셨다. 우리는 광복동 산기슭에 있는 피난 천막 학교에 다녔다. 그러다가 학교가 서대신동으로 이사를 했다. 천막이나 폐차된 버스 안에서 공부하던 생각이 난다. 그때 정대철(전 국회의원, 나와 국민학교 동기)이 어린이 회장(학생회장)에 뽑혔었다. 높이 싸놓은 짚단을 기어오르며 놀던 생각도 난다. 그때 부산에는 불이 자주 났다. 광복동 시장에 불이 났을 때 밤하늘이 별경게 달아올랐다. 아침에 시장에 가보니 온통 잿더미가 되어 타다 남은 땅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그때 부산 사투리를 완벽하게 했는데 동네 아이들은 서투른 서울 말씨로 나에게 말하곤 했다. 도둑도 많았다. 엄청난 양의 대변을 싸 놓고 가면 도둑이 든 줄 알았다. 별로 흠쳐 갈 것도 없었는데. 문동병 환자만 보면 도망 다니던 생각도 난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 완전히 폐허가 된 서울에서 학교

<전면에서 계속> 격인 사랑과 정의간의 이분관계(dichotomy)에서 사랑 또는 정의,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자기가 충분히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1930년 니버는 현실에 직면한 인간의 사회윤리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로부터는 얻을 수 없고 항상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폭력 행사에 관해서 예수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니버는 자기의 사랑과 정의의 이분론에서 무언가 빠져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사랑을 경시했음을 시인했다. 사랑은 정의를 위한 투쟁에 필수적인 동기를 기여하는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니버는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론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정의를 향한 “가장 가까운 방법”은 갖고 있었다. 니버는 기독교

교 교리의 세세한 점은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힌다. 그의 글을 읽을 때는, 아예 애매함(ambiguity)과 역설(paradox)이 아주 많다는 것을 받아드리고 읽으면 이해가 쉽다. 니버에게는 예수의 사랑의 윤리는 현실을 떠난 이상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이상주의 때문에, 예수의 사랑은 항상 지침(point)이요, 동기(motive)요, 목표(end)였다. 니버는 예수를 따랐기에, 비록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도, 사회문제의 책임을 져야만 했다. 사랑은 개인의 존엄을 위해서는 아무런 계산 없이 관심을 기울여 주며 따라서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의에 확고한 원칙은 없다. 그러나 동등, 자유, 질서 이 세 원칙이 정의를 논하는데 유용하다. 정의와 사랑은

항상 역설적이다. 니버는 역설을 정리하는데 전 생애를 바쳤다. 니버는 스스로를 “니버를 위한 무신론자”라고 부르며 따르는 속세인(secular)과의 대화를 즐겼다. 그러나 그에게 기독교 현실주의에서 속세적인 면이 아닌 종교적인 면은 필수조건이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면이 없는 역사는 무의미하고 그런 역사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신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투쟁에 필수조건이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감상주의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호히 선언했다.

오늘날 다양한 니버주의자(Nieberian)가 있다. 그들에게 니버는 각자 다른 신학, 윤리, 정치를 상징한다. 그러나 관점이야 어떻든 그의 유산의 중심점은 그

# 이 세상

나두섭 (73, 남가주)

붉게 물들이는 일출과  
황홀한 일몰이 있는 곳

산도 강도 호수도 있고  
비온뒤 무지개도 뜨는 곳

꽃은 피고 새는 노래하고  
별과 나비가 춤추는 곳

시도 있고 음악도 있고  
자연을 그려볼수도 있는 곳

가정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리운 마음도 가질수 있는 곳

좋아하는 음식도 먹을수 있고  
즐거움 취미도 가질수 있는 곳

어찌다 사랑을 나눌수도 있고  
때로는 행복을 느낄수도 있는 곳

오늘도 내마음 종달새 되어  
소박한 꿈을 찾아 하늘을 날으리라



사진: 극락조 - 나두섭

강단에 칸막이를 치고 공부하던 생각이 난다. 그때 박용현 원장, 고 김용일 교수, 이견일 박사 등과 한 교실에서 공부했다. 그후 을지로 6가에 다시 새 학교 건물을 짓고 이사했다. 청계천 판자촌에 가면 무엇이든지 싸게 살수 있었다. 헌책이며, 운동기구 등 없는 것이 없었다. 나는 거기서 야구 클럽과 헌 스케이트를 사서 놀던 생각이 난다. 탱크가 청계천 판자촌으로 굴러 들어가면 순식간에 분해되어 각종 부속품이나 고철로 팔린다는 말도 들었다.

우리는 그때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잃었다. 그 후 4.19, 5.16 등 격동의 시절을 거쳐 새마을 운동 때는 현장에서 참여하였었다. 무의촌에 가서 결핵 퇴치, 모자보건, 가족계획 등에 직접 참여하였다.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 한국과 초현대식 서울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누가 이 생생한 동족 상잔의 비극과 재기의 체험담을 말할 수 있겠는가? 역사는 정치환경에 따라 변하고 진실은 땅에 묻힐 것인가?

의 '사고방식'이다. 그 방식을 따르는 게 니버주의자다.

니버는 기독교 윤리와 정치적 현실주의를 융합하려고 노력한 인물이다. 그는 기독교와 사회적 윤리 그리고 정치적 문제의 관계를 다룬 지난 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였다. 그리고 그의 위대한 주제인 감상적인 이상주의(sentimental idealism)와 냉소적인 현실주의(cynical realism) 사이를 헤쳐나갈 필요성을 이 “빛의 아이와 어둠의 아이”보다 더 잘 기술된 곳은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다.

“빛의 아이와 어둠의 아이의”에 관한 글은 대부분 2011년에 출판된 이 책의 Gary Dorrien의 소개문에서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2020년 5월 25일

첫대면

배터리 충전기를 집에 두고 온 카메라는 고철. 무거운 고철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 건 다행이지만, 잡아 통조림해 두고 싶을 풍광들을 아이폰 사진으로 만족해야 하는 건 아쉽다. 눈에, 마음에 담아둬? 내 눈은 그런 능력 상실한 지 오래고 마음에는 그런 것들을 담아둘 빈자리 없어진지 한참이다. 카메라라는 문명의 이기에 위임하기로 한지 오래. 그러면 휴가 동안 찍었던 사진들 나중에 들쳐 보기는 하는가? 드물다. 어딘가 있으려니 하는 기대, 어차피 안 보는 거니 있으나 마나인데도 마음은 그렇질 못한 관심을 유지 게걸스레 찍고 클라우드에 꼭꼭 숨겨놓는다. 호텔은 못 잡고 B&B를 빌렸다. 이름은 'Bed & Breakfast'인데 아침은 빠진다. 햇반, 라면, 김, 우엉, 단무지, 스펀 달걀로 나흘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 낀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는 식당에 간다는 게 계름칙하다.

옐로우스톤 공원의 교통체증은 악명 높다. 금년엔 평년의 배가 넘는 휴가객들이 몰렸더니 그래서서니 했는데 코로나 전에 여길 왔던 지인 왠 교통 좀 나아졌나 모르겠네? 즉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로 지었다는 얘기. 교통체증은 이곳의 유서 깊은 전통이라는 걸 안다. 들소 때가 하이웨이를 건너면 그놈들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왜냐? 우리는 그놈들의 뒷마당을 허가 없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교통이 막힌다는 건 이 신경질나는 교통체증을 견뎌 내기 위해 지어낸 낭만적 허구가 아닐까? 하이웨이를 달리다 별판 저편에 흩어져 있는 들소(bison)들을 보기는 보았다 만 무리져 있지도 않았고 험상궂어 더 정겨운 표정을 읽을 만한 거리도 아니었다. 멀리 지나가는 엘크 무리는 보았다. 별 감흥 없이. 우리는 그들의 안방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들이 잃은 것에 대해 그리 애달파 하는 것 같지 않다.

가이저, 칼데라, 핫스팟

가이저란 아이슬란드 말로 '솟구치는 것'이란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어 번역 분천(噴泉)이 직역에 가깝다. 항상 솟구치는 게 아니라 얼마간 시간의 간격을 두고 되풀이해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간헐천(間歇泉)이란 말이 우리 귀엔 더 익다. 우리의 짜증을 딱 닮은 건가? 가끔가다 느닷없이 솟구치는 게.

화산이 터지면 마그마(땅속의 용암)는 용암(lava)으로 분출되고 마그마의 분출로 비워진 공간은 화산의 윗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매위 움푹한 가마솥 같은 형태가 된다. 이를 'caldera'(스페인 말로 가마솥)라 한다. 칼데라의 지각(地殼)은 얇게 마련, 얇은 겹데기 바로 밑에 마그마가 자리하게 된다. 하여, 소위 'hot spot'이란 게 도처에 형성된다. 문자 그대로 뜨거운 장소다. 이 뜨거운 장소들이 근처에 갇혀 있던 물을 끓는 물기둥으로 분출한다. 이게 현대인이 설명하고 있는 가이저다. 원주민들의 답론은 다르다. 한결 시적(詩的)이다. 지하의 영(靈)들, 그들의 싸움 때문이란단. 그래서 그들은 이 칼데라에, 영들의 싸움터에,



접근하기를 꺼려했다.

옐로우스톤 칼데라

옐로우스톤 지역에는 지난 200만여 년 동안 세 차례의 초대형(super-mega)화산 폭발이 있었다. 최근의 것은 64만년 전. 그때 형성된 칼데라가 64만년의 풍상 끝에 만들어진 게 현 옐로우스톤 고원(高原)이고 공원이자. 반 백만 년이 훌쩍 넘어 지났지만 그때의 경천동지(驚天動地)를 잊지 못하고 있다. 성미가 마른 편인가 보다. 적당히 잊을 때가 되면 잊어야 지! 운다고 옛사랑 돌아오지 아니하듯 주책없이 물이나 뿜어낸다고 소진된 마그마가 돌아오겠냐? 도합 1,200여개의 가이저가 확인됐고 매년 500여개가 이 공원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다. 아직 영(靈)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64만년 전 옐로우스톤의 화산은 40년 전(1980년) 세인트 헬레나 화산의 -비행항로마저 가로막던 그 위력의 화산-2400배의 크기였다고 추정한다. 그런 규모의 화산으로 생긴 칼데라니 클 수밖에 없다. 크고 (45mile by 30mile) 높고 (3200meter) 황량하다. 무엇보다도 어수선하다. 어수선한 공간 이곳저곳에서 무질서하게 가이저들이 피어오른다. 이 거대한 공간에서 멀리 보이는 가이저들은 솟구쳐 오른다기보다는 피어오른다는 말이 더 어울린다. 겨울철 맨해튼 지하철 통풍구에서 혹은 모퉁이의 핫도그 카트에서 번져나오는 김처럼, 어떤 것 들은 참 보잘것없이 초라하다. 비록 솟구치는 물줄기라도 수증기로 싸여 있어 그 격렬함은 볼 수 없다. 이 어수선한 무질서가 불협화음처럼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렇다. 불협화음이다. 캘리포니아 모하비사막의 죽음의 골짜기의 황량함과는 다르다. 거대한 호수가 서서히 말라서 생긴 게 죽음의 골짜기다. 200만여 년 동안의 내성(?)의 시간을 가진 곳이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있다. 상실이라는 걸 소화, 동화(同化) 시켰다. 그래, 공간이 그냥 빈 게 아니라 빈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라는 엉뚱한 선(禪)적 사유도 가능케한다. 옐로우스톤은 태생이 다르다. 수퍼메가급 화산의 폭발, 돌마저 녹여버린 마그마의 분출의 결과물이다. 억압됐던 내 본능의 에너지는 돌을 녹일 정도였어. 그걸 달래기에는 64만 년은 턱도 없이 짧아하는 듯하다. 그래, 이곳의 불만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다. 어떤 놈은 솟구치고 어떤 놈은 불길한 유황냄새를 아가리에서 뿜어낸다. 또 어떤 놈은 진흙구덩이에서 풀 쏘 때처럼 쉬지 않고 풀력거린다. 모두가 우왕좌왕 그저 어쩔 줄 몰라 한다.

미국은 땅덩이가 큰 탓인가 황량한 공간이 많다. 이 황량한 공간이 예술가나 문인들, 또 그들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건 내가 왈가왈부할 영역도

김창남(69, 뉴저지)

이해할 영역도 아니다. 다만 이 옐로우스톤 칼데라를 보며 피츠제랄드의 개츠비(위대한 개츠비)가 떠올랐다. 연인에게 용암으로 솟구쳤던 마그마, 연인은 떠나고 마그마만 소진되어 생긴 공간, 개츠비의 내면은 칼데라와 태생이 유사하다. 이미 남의 사람이 되어버린 옛 연인의 집을 하릴없이 바라보는 개츠비가 벌이던 호화판 파티는 그가 시도한 가이저가 아니고 무어랴. 암만 솟구쳐 봐야 그게 마음의 황량함을 달래랴! 오백 여개의 샘이 솟구치고 있지만 옐로우스톤의 칼데라는 그저 황량하기만 하고 불협화음처럼 불안하다. 상실의 아픔을 해소하지 못한 개츠비의 허구, 급조된 아메리칸 드림처럼 폭발해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문자 그대로 이곳에선 화산이 또 터질 거라고 한다. 터진다는 건 확실하다. 언제 인지는 모르지만. 쉬 터진단다.

지난해 오스카를 휩쓸었던 영화 'Nomad Land'가 스크린 가득히 찍어낸 서부의 광대한 공간, 그 스크린을 가로지르던 손톱만한 자동차와의 대비 때문에 더욱 터무니없이 거대해 보이던 황량함,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향하던 유목민의 영토와 이 공원은 다르다. 영화가 끝날 무렵 친숙하고 매력적인 것으로까지 탈바꿈하던 -나도 모든 거 훌훌 다 버리고 저 황야로 나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나마 들던- 황량함과 이 공원은 대비된다. 상실한 사람들을 끌어드리던, 상실한 사람들이 동일시하던 그런 황량함이 아니다. 상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어쩔 줄 모르는 황량이다

나이 지긋한 여인이 흘러당 벗은 채로 문 쪽에서 들어오는 햇살을 받고 있다. 에드워드 호퍼의 'Woman in the Sun'이다. 시트가 헝클어진 침대에는 동반자가 있었다는 흔적이 없다. 모텔방에서 혼자 자고 일어난 이 여인의 옆모습에 텅 빈 쓸쓸한 공간이 묻어나는 건 호퍼의 마술인 건가 혹은 우리 자신들의 내면 때문인 건가. 그런 쓸쓸함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데가 옐로우스톤이다. 그런데, 그런데, 유부(妖婦)가 숨어있다.

Grand Prismatic Spring

한눈에 요부다. 요염하다. 화장이 질다. 물 옥색 푸른 눈에 무지개빛 아이새도우가 물씬 관능을 발산한다. 세상에 이런 보석이 있담. 직경 50미터의 거대한 보석이다. 현대 이런 화려한 색상의 본체가 보석(寶石, precious stone)이 아니란다. 미네랄의 결정이 아니란다. 컵의 물은 무색으로 보이지만 백색광의 파랑만 잡아내는 속성으로 깊어지면 옥색이 되고 더 깊어지면 인당수(印塘水) 물처럼 질푸르러진다. 수심 오십 미터 온천의 복판은 섭씨 75도 미생물이 살수 없는 온도, 미생물의 개입이 불허된 순수한 물, 따라서 파랑이다. 가장자리로 나오면서 드디어 미생물이 살기 시작, 깊이와 온도의 차에

따라 각자에 맞는 파장의 햇빛을 이용,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파랑, 초록, 노랑, 주황 빨강의 무지개색 테두리를 형성한다. 즉 이 찬란한 색깔들은 미네랄의 결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미생물인 거다.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거다. 세상에 이런 농간도 있담? 이 살아있는 보석. 푸른 눈과 짙은 아이새도우로 유혹한다. 나는 떠날 줄 모른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팜프 파탈 'femme fatale' 처럼.

대협곡 (grand canyon of Yellowstone)

이해하기 힘든 곳이 옐로우스톤의 대협곡이라는 곳이다. 도대체 공원의 다른 부분과 어울리질 않는다. 전혀 황량하지 않다. 오아시스 같다. 정리 잘 되어있는 동양화의 심산유곡이다. 멀리 폭포도 희게 걸려있다. 계곡의 물은 포말을 지으며 팔팔 흘러내린다.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깊이인데 맞은편 절벽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계곡으로 내려가면 이태백이라도 나타나 왜 이 산중에 사는 거요, 물으면 그냥 웃으며 마음은 한가롭답니다 할 듯싶다. 이태백 만날 걱정은 안 해도 됐다. 아래로 내려가는 트레일은 공사로 임시 폐쇄. 이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순환로가 있다. 그 순환로의 대각선상에 팜프 파탈과 이태백은 자리하고 있다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르며.

Old Faithful

믿을 만한 오랜 것? 원주민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리라는 물증은 있지만 그들이 이 가이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탐험가 'Lang ford'가 1870년도에 현 이름으로 명명했다. 꼭 일어난다는 신뢰성으로 지어진 이름, 종교적 의미는 아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어난다. 건너뛰는 법 없다. 신경질 나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한다. 가끔가다 한 번쯤은 걸러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묻고 싶다. 일탈(逸脫)에의 능력, 이 가이저에겐 없는 거다.

매 90분마다 40여 미터의 물기둥을 뿜어낸다. 수증기로 싸여 있어 곧추 오르는 물기둥은 막상 보이지 않는다. 관광상품화 된 지 오래라 신선한 맛은 가셨다. 진부하건 신선하건 아랑곳 않고 반복한다. 이 가이저는 얼마나 오랜 세월 같은 짓 되풀이해온 건가! 저 똑심, 저 끈기! 달마대사도 한가지 일을 계속한 건 고작 9년이야.

떠나며

개츠비를 떠올리고 에드워드 호퍼, 달마를 들먹거리며 이 옐로우스톤을 이해하려 하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내 기억의 갈피에 넣어두고 싶으나, 이 공원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들소와 교통체증, 팜프 파탈과 이태백 등 상반되는 이미지들의 충돌, 무작정 반복해대는 'Old Faithful', 무엇보다도 이 총체적 어수선함에 나는 혼란스러워지고 압도된다. 인생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미스터리라고 누가 그랬던가? 언설이 불가능한 곳, 라캉이 말하는 실재(Real)다. 우리의 의식 밖에 있는, 안다는 것이 불가능한 지점, 경험할 수는 있지만 설명은 불가능한 곳, 옐로우스톤은 경험해야 할 미스터리다.

농담 골목

나는 시계탑을 읽으면 기분이 좋다. 그래서 이 신문을 자주 읽고 또 읽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여러분께서 이 신문을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 - (서울의대를 1955년에 졸업한 노용면)

**백수** - 백수(白手)란 맨손에서 유래되었으며 별 다른 직업이 없는 실업자란 뜻이다. 100세 시대인 요즘 세상에는 백수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COVID pandemic으로 자의이던 타의이던 백수의 수는 늘어만가고 있다. 그런데 백수도 그 정도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구별한다.

- 1 급: 동백. 할 일 없이 동네만 어슬렁 거리며 돌아다니는 백수이다.
- 2 급: 가백. 하루 종일 가정에만 쳐박혀 있는 백수를 말한다.
- 3 급: 불백.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로 정말 앞이 안보이는 백수다.
- 4 급: 화백. 조금 나은 백수로 젊었을 때 돈을 좀 쟁겼기 때문에 일주일에 골프장

을 두 세번 다니는 말 그대로 화려한 백수를 일컫는다.

5 등: 반백. 백수들의 반란으로 값있게 살아가는 백수를 뜻한다. 대표적인 반백으로 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을 들 수가 있다.

**탈출** - 한 정신병원에서 감감함을 참지 못한 두 명의 환자가 탈출을 시도했다. 두 사람은 침대 시트를 갈기갈기 찢은 뒤 조각들을 묶어 탈출용 밧줄을 만들었다. 어느 정도 길이가 되자 먼저 한 명이 밧줄을 창밖으로 던지고 내려갔다. 잠시 뒤 다른 한명이 따라 내려가려는데 먼저 환자가 불쑥 올라와서는 말했다. "안 되겠어, 너무 짧아." 두 사람은 옆방 시트도 몰래 가져오고 환자복도 벗어 아까보다 훨씬 긴 밧줄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먼저 내려갔던 환자가 탈출을 시도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환자가 다시 올라오더니 하는 말이 "도저히 안 되겠어, 이번엔 너무 길어."

**돌팔이 의사**  
 의사: 어디 불편한데라도 있습니까?  
 환자: 숨을 쉬기만 하면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의사: 아, 그러세요 그럼 곧 숨을 멈추게 해 드리지요. (이덕승)

# 현대 정신의학의 개요 III

## -정신병의 개념의 변천과 이해

김 해 암(58, 대뉴욕)

첫째,  
정신병을 난치의 병이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신병은 몸과 마음의 병이므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종래로 정신과를 다른 의학과 맞먹게 다루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정신과 의사를 포함하여 정신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치료는 치료지만 성장이나, 인생 과정은 뒤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충 혹은 보조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런 도움을 환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완쾌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이다.

그러면 난치의 병이 아니라고 가족이나 환자가 본다면 어떤가? 선입관부터 고치고 환자와 부모 가족이 공동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 해결책을 함께 찾으면 단 시일 내에 정상을 회복하고 성장 과정을 이어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지혜를 어떻게 습득하냐 하면 옛날과 달리, 지금은 IT를 통해 얼마든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의사 선택, 약물 선정 그리고 치료방법을 현명하게 할수록 치료 과정이 빨라지고 회복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확실하다. 물론 지금은 이 모든 면에서 결정하는데 있어 지식을 습득하기 쉽다.

정신병 중에서 약으로 조기에 치료될 수 있는 병과 그렇지 않고 약으로 증상은 치료되지만 병적 상태가 진전하며 재발을 거듭할 수 있는 병이 있다. 정신과 의사들도 이런 구별을 모르거나 배우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몇 의사를 면접한 후에 선택함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기 회복을 기하는데 중요하다.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지시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환자나 가족이 적극 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언제, 어떻게 사용하며, 부작용, 용량 등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며 자기 관찰을 잘해야 한다. 또 치료 방법도 의사에 따라 다르므로 약물만으로 되는 경우, 또는 약물과 정신 치료를 합치는 경우 등 고려하고 어떤 정신 치료를 택하는가도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셋째,  
정신력의 문제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경우, 솔직하게 의사에게 자기의 종교 신념, 종교적으로 보는 병에 대한 이해와 원인 등을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의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종교심에 부합한 정신 치료사를 선택하면 더 좋고 빠른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신론자, 인본주의자도 마찬가지다. 무엇이든 믿고 따르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치료자와 피치료자 사이의 간극을 막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력의 문제에서 크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환자와 치료사의 감성과 인격이 맞아야 하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다른 치료자에게 소개하거나, 환자에게 감성이 통하는 치료자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다. 인종, 사상, 성격 등의 차이 등을 토의하여 해결이 어려우면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환자는 의사를 선정하는데 신중해야 하고, 의사는 환자를 다른 의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에게 소개하는 양식이 필요하다. 정신 치료뿐 아니라 약물치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약물치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약을 써 봐도 듣지 않는 경우 전문 의에게 문의하거나 상의하여 새로운 투약을 시작함이 좋고, 여러 약을 섞어 쓰는 방법을 지향함이 바람직하다.

또 특수한 경우, 말하자면 마약으로 규정되었으나 의료용으로 허용되는 약인 경우, 말하자면, 대마초, 환각제 중 특히 사이로사이빈 버섯의 사용 등이 문제 시되면 그런 연구를 한 의사나 기관에 의뢰함이 옳다고 본다. 또 최면술을 쓰는 경우, 특히 해산의 고통을 덜어주는 경우인데,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공부하여 경험을 쌓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나도 소아 정신과에서 어린이들에게 최면 치료하여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있다.

다섯째,  
병 치료를 할 때에 보험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에 따라 지불수당이 다를 뿐 아니라, 약물치료는 인정하는데 정신 치료는 안되거나, 약물치료는 의사에게서 받을 수 있으나 정신 치료는 심리학자나 사회사업 전공 의로 상담을 하는 분에게 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자비로써, 원하는 의사에게 가거나, 특수한 경우, 신청하여 허락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만성 질환이 되어 버린 정신병은 개인회사 보험이나 국가 보험에서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 법원에 가서 판사의 판결을 받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무기한 입원 및 체류가 가능하다. 1970년 말경에서 주정부의 예산을 제일 많이 앗아가던 정신병원 예산이 줄어들고 연방정부의 보조 즉 메디케이드가 등장하여 양로원, 노인 홈 등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이민 역사를 보면 20세기 전후에 구라과에서 이민 인구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이민자들이 큰 도시에 정착하다 보니 노인들과 불구자, 환자를 가족이 간호할 수 없게 되니 직장을 2-3개 가지고 일하던 젊은 세대는 늙은이들에게 정신 병명을 붙여 주립 정신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이 대거 발생했다. 이런 주립 병원법이 시행되자, 병원이 난립하여 경쟁을 하게 되었다. 입원 환자 수가 만 명이 넘는 곳도 대도시 주변에 즐비하게 되었다. 예로 뉴욕의 롱아일랜드에는 환자 만 명이 넘는 병원 5-6개가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동양인보다 서양인들은 노인 푸대접이 더 심각했던 것 같다.

한 환자의 예를 들면 뉴저지주 포트 리 학교에 다니던 7학년 학생이 소아 분열병에 걸려 폭행을 자주 해서, 우체부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어머니는 부모가 손자의 폭행에 질려 병들어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고, 아빠는 행방을 감추고, 학교 당국은 늘 경찰을 불러 6척이 넘는 250파운드의 거구 한국 학생에 골치를 앓았다. 나는 이런 특수 환자의 교육법을 행사하여 신고한 결과 1년 내에 타운 교육국에서 매년 10-20만 불을 지불해야 하는 사립 특수 치료 학교에 보내어 12 학년까지 보장을 시킨 경우가 있다.

여섯째,  
미국의 정신병 환자를 관장하는 법은 복잡 다양하다. 내가 수련을 시작한 1959년에서 1970대까지도 의사의 처방 명령으로 병자의 입 퇴원이 가능했다. 그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여 정신병자 보호법이 생겨 범정에 가서 환자 치료에 대한 법적 처리법을 거치지 않으면 정신병 환자를 의사가 자유롭게 다룰 수 없게 되었다. 법원 명령이 없으면 치료비도 못 받는 제도가 생겨서 여러 가지 변

천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약을 거부하고 폭행을 해도 경찰을 불러 법원에 가서 판사의 지시를 받아 약을 복용하라는 지시를 법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한편 정신과 의사의 일이 쉬워지는 반면에 법적 수속 등 시간의 낭비에 비용의 상승으로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격이 되어, 인권의 보장은 된다 치더라도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상이 수십 년 계속되고 장기 환자는 늘어가고 만 있다. 이는 자본주의 나라의 방식이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런 제도 때문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병을 치료하기 보다 법적 수속에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별다른 대책이 없으므로 지속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곱째,  
노인층에 많은 치매 현상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병같은 치료는 영원히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예방과 대책을 세워서 환자와 가족이 편하게 생활하는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환자와 가족에게 알맞은 치밀한 생활 방도를 세워야 한다. 특히 진행성 치매의 경우 사전에 생활 단면을 정리하고 간호인의 도움, 편리한 도구, 용기 등을 갖추어 사용 훈련을 해 두어야 한다.

노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가능하면 건강 관리를 하도록 공부하고 준비함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음식 관리부터 각종 의사의 선택, 약속, 의료 보험의 선정을 본인이 해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부탁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노인병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몸의 기능이 저하하고 병세가 생기면 곧 치료에 임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우울증이 노년에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명이 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이 가족관계와 대인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항울제를 쓰기보다는 먼저, 대인 관계를 다루어야 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가족이나 집단 치료의 경험이 없고 의사 자신의 대인관계가 쉽지 않을 경우 심리 치료사나 목회 치료사에 의뢰함이 좋을 것이다.

여덟째,  
유년기에 심신의 발육부전이 있고, 노년에 치매, 우울증이 난치의 병이 있다면 청소년 시기에는 발생하고 어려서부터 동물이나 미생에게 잔인한 가해 행동을 하는 습성이 지속하는 정신병질적이거나 사회 병질 적 장애(psychopathy or Sociopathy)라 불리는 경우가 있는 이런 환자들이 대량 살인, 변태적 가해, 혈액 살인 등을 인간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 조화 (弔花)

김정용(73, 대뉴욕)

흰 꽃 품속으로 묻힌 너의 얼굴에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얹는다

세월을 이리 곱게 피워냈어도  
타고난 가시들은 어쩔 수 없어  
영원히 저주받은 방랑자처럼  
방향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슴들을 찢어 왔었지

이제는 두려움을 잊은 붉은 유혹  
거세된 나신(裸身)의 매끄러운 줄기위로  
한 폭의 성화(聖花)로 누워있는 너  
뒤늦은 은총들이 눈꽃처럼 뿌려지고

슬픔과 아쉬움, 분노 회한(悔恨), 용서  
가슴으로 안아야 할 모든 것들은  
태고적부터 언제나 그래왔듯이  
뒤로 남아 살아갈 사람들의 몫  
흐릿한 그리움은 노래로 되어 물결처럼 퍼져나간다

(멀리 들려오는 여인들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  
그 치명적인 유혹을 뿌리치려고  
오디세우스는 귀를 틀어막고 몸부림을 친다  
거친 물살로 빨려드는 뱃머리  
오, 제우스여, 우리들의 신이시여  
저희를 이 죽음의 유혹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오, 페넬로페여, 오 나의 페넬로페여  
정결하고 아름다운 나의 여인이여  
이 소용돌이 물살 위로 내어 뺐는  
나의 팔을 단단히 붙들어주오)

이윽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덮으시면  
참회를 마친 수도승처럼  
우리들은 무거운 눈인사를 서로 나누고  
자리를 일어나 돌아선다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방울꽃 피던 먼 그늘 아래로  
하나씩 둘씩 저어 내려오는 소리  
소용돌이  
우리들의 귀로(歸路).



병이 있다. 인격의 분열이라기보다는 독자적 특수한 잔인성 인격의 돌연 변이로 인하여 양심의 파비와 감정의 결핍으로 살인, 방화 등을 일삼는 병이다. 불치의 병이지만 사회에서나 학계에서도 사전 진단이나 범죄 예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근자에 일어난 아틀랜타나 볼도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 이런 인격 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진단하며, 어떤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정신과의 미개척 분야에 속하고 정신병으로 유발되는 범죄 집단을 치료하는 감옥 병원(hospital for the criminally insane)이 따로 있다.

아홉째,  
조현병, 또는 정신 분열증이라고 불리는 병은 청소년기 중 말기에 발생하여 병세에 따라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심한 병세로 일생을 병적 상태가 지속하여, 환청, 환상 등의 증상과 더불어 자폐증 같은 증상 등이 있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여러 치료 약이 발달하였으나 증상 일시 회복이 있지만 재발을 거듭할 뿐 완치는 없다.  
먼저 기술한 고등 <다음면에 계속>

# 2021-22 회비 및 후원금 현황

안우성 50대 회기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1949 고영철
- 1954 김갑균 이동식
- 1956 김윤태 박상기 서상철
- 1958 김부근 김석희 김시한 김학륜 김해암 문석면 류치열 박호현 배영섭 송세엽 이동립 이만택 이종국 이종용 임영신 최병두 최창송
- 1959 김병구 김용덕 나길진 서경화 이종수 정태진 최용천 최대한 최종진 최혜숙 한성업
- 1960 권기홍 김영환 김완주 김인환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춘명 오신중 이광준 이덕승 이상일 임종원 임필순 전희근 최홍락 한성수
- 1961 고의걸 과동린 김영철 김예흠 김학철 김화섭 박승균 박준환 박장생 박호성 서취열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동해 이준우 이재두 이재승 이한수 이회백 이철희 장성환 정두현 조은순 진창건 최공창 최용성 황현상
- 1962 고흥호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김호균 남성희 박종건 송홍일 오태요 이기범 이상무 이상원 이석우 이상복 이영웅 장환순 정정수 조명호
- 1963 강영호 김갑중 김광섭 김승태 김정일 김태웅 김태형 김택수 김현학 마동일 박승균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왕규현 윤영섭 윤영옥 윤진수 이병준 이수인 이종두 이재명 정관호 조한원 진병학 추재욱 하상태 한광수 한기현
-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태환 라찬국 박세준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오수환 오유섭 유광현 윤희기 이웅만 이정은 이주영 이정필 이종성 이종우 이홍표 정유석 조성준 조창언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선우세현
- 1965 구경희 김길중 김옥현 김덕진 박수안 신백호 윤원길 이광선 이범석 이정의 이재진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장재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최동욱 최영인 채도경 홍수웅
- 1966 김우신 김은한 김용재 김의신 김진수 김진호 김충규 이인수 이영일 장한교 조규용 최순채 최영자 한일성 황 철
-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태웅 문경웅 우준규 유 달 유진일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진수 이태안 최무웅 최승웅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경인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주평 김희주 김 철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윤석 송창호 안세현 유우영 이병순 이상훈 정재성 최 철 흥광신 황훈규
- 1969 김병오 김윤성 김중권 김창남 박수웅 송용재 신영찬 안병일 양재관 엄규동 오선웅 육순재 윤희윤 이용환 이충호 이지훈 임웅규 전덕성 최종진
- 1970 김형달 문성길 오석일 장극기 송요준 박흥식 조남현 최원일 홍 건 홍종철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제홍 김 훈 김효순 김창구 노재홍 박동수 박상호 배성호 서상현 서정자 오동환 오상현 이성길 이원택 이종일 이종준 장 철 정인용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최영철
-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오용호 이기진 이신재 정진우 조경호
- 1973 김정용 나두섭 민인기 방병기 서인석 심완섭 오인환 위장호 이계석

- 1974 권철수 김웅진 유영준
- 1975 김명호 김원정 김자역 박인영 배영훈 전경배 한 일
- 1976 김정아 유영걸 한승신
- 1977 강준희 김동훈 박일우 박정식
- 1982 차민영
- 1983 전원일
- 1984 구철희 서귀숙 정희국 오도영
- 1991 홍정연
- 1995 권준혁
- 2001 김민정
- 2002 최태웅
- 2008 박종한
- 2009 송경민

### 37th CONVENTION DONATION

- 임종식(57)1,000 김해암(58) 100 최종진(59) 200 권기홍(60) 500 황현상(61) 200
- 김태웅(63)1,000 이홍표(64) 300 서윤석(68) 500 유우영(68) 300 전덕성(69) 200
- 김성환(71)1,000 오용호(72) 200 김웅진(74) 100 권철수(74) 100 유영준(75) 150
- 배영훈(75) 75 김정아(76) 500 유영걸(76) 150 한승신(76) 500

### GREEN PROJECT FUND

- 정정수(62) 375 이홍표(64) 200 홍광신(68) 100 이성길(71) 100 오용호(72) 300
- 서인석(73) 100 김원정(75) 100 김정아(76) 300 한승신(73) 300 서귀숙(84) 100
- 홍정연(91) 100 최태웅(02) 100

### CHARITY FUND

- 박승균(61) 100 라찬국(64) 100 신두식(64) 100 홍선경(64) 100 최영인(65) 100
- 최영자(66) 200 오용호(72) 300 민인기(73) 100 김웅진(74) 100 한 일(75) 375
-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채도경(99) 100

### SCHOLARSHIP FUND

- 한성수(60) 75 임필순(60) 200 황현상(61) 100 고흥호(62) 100 이기범(62) 375
- 박종건(62) 500 김태웅(63)10,000한광수(63) 100 한기현(63) 375 이홍표(64) 200
- 안연승(64) 200 이광선(65) 75 강명식(67) 175 이영균(67) 150 김주평(68) 75
- 박수웅(69) 175 김효순(71) 125 서정자(71) 400 김웅진(74) 100 김자역(75) 500
- 유영걸(76) 100 구철희(84) 75

### GENERAL DONATION

- 김갑균(54) 100 노용면(55) 150 김석희(58) 200 최창송(58) 100 문석면(58) 150
- 정태진(59) 75 한성업(59) 100 최혜숙(59) 125 권기홍(60)1,550 박명근(60) 50
- 김인환(60) 200 손기용(61) 200 이철희(61) 200 장성환(61) 100 진창건(61) 75
- 최용성(61) 100 황현상(61) 100 남성희(62) 125 김현학(63) 75 송용덕(63) 200
- 신경호(63) 75 이병준(63) 100 조한원(63) 75 추재욱(63) 500 권정덕(64) 100
- 이홍표(64) 175 최준희(64) 200 김태환(64) 125 박수안(65) 100 이한승(65) 50
- 정길화(65) 100 김진호(66) 100 이인수(66) 100 김영남(68) 200 이병순(68) 875
- 이상훈(68) 175 김중권(69) 200 윤효윤(69) 100 이용환(69) 100 김형달(70) 100
- 오석일(70) 100 김일영(71)1,000 김유식(71) 75 배성호(71) 175 오동환(71) 200
- 장 철(71) 75 하준영(71) 75 조경호(72) 250 나두섭(73) 300 이계석(73) 100
- 서인석(73) 100 권철수(74) 100 박인영(75) 50 김동훈(77) 200 차민영(82)1,000
- 오도영(83) 75 전원일(83) 125 서귀숙(84) 100 박정미(85) 200 권준혁(95) 150
- 조수정(03) 125 이정민 여사(고 차봉희 57 부인) 1,000

### AASCDTF DONATION

- 황현상(61) 100 김태환(64) 50 한영수(67) 200 강창홍(71) 100 이성길(71) 100

<전면에서 계속> 학생의 경우도 그렇지 만 조현병의 치료는 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의향과 성격에 맞는 병원이나 치료소에 보내는 아량과 혜안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성장 과정을 잘 추적하여 지성과 감성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장기치료 모델이 있어야 한다. 그런 치료를 인도적으로 잘 하는 나라나 사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조현증과 흡사하고 심한 경우 분간하기 어려운 병이 있다. 양극성 기분장애가 바로 그것이다. 경증인 경우 약만으로도 병의 진행을 늦추고, 일생을 지향하는 복약을 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 심한 경우, 즉 광울증(광란과 우울병이 합쳐진 것)과 조현증은 증상과 과정이 비슷하므로 치료, 투약이 비슷하다. 그러나 양극성 기분 장애는 비교적 치료 반응이 조현증에 비해 좋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경우 정상에 가까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열째,

정신병은 고래로 국가나 정부가 의료 제도에서 특수하게 다루어 왔다. 그 이유는 '불치의' 병으로 어느 인간 집단에 든 다 있는 현상이므로 개인이나 가족이 일생을 보장할 수도 없고 하여, 자연 재난과 같은 취급을 받아 왔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오히려 이런 전통을 저 버리고 천차만별의 대안을 갖고 정신병을 처리하고 있다. 감옥과 형무소에 정신병 환자를 엄청나게 보내는 이유는 장기 정신 병원을 폐쇄시킨 때문이다.

무슨 말이나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역량과 기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용하도록 하여 부유층의 의료 혜택은 최선을 기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은 사립 의료 보험을 구입해야 좋은 의료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사회

에서는 의학도 기술이고 능숙한 사람들 만이 고급 혜택을 받는 공리주의 사회를 이루었다. 어렵고 오랜 수련을 시키는 제도를 만들고 수련이 끝나면 개인 개업으로 명성을 떨쳐 개업을 부촌에서 독점하는 폐단이 생겼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자 사회주의적 제도를 고안하여 2차 대전 후 구라파에서는 모두 국가 보험을 시행하였다.

미국에서는 정신병의 경우에 그 환자 수가 많고, 장기간을 요구하는 치료이므로 국가 보험과 개인 보험을 절충하는 방안을 시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자.

1991년에 미국 정신분석학회(AAPP)의 국제 학회를 내가 조직하여 한국, 대만 그리고 태국에서 국제 학회를 계획하여 회원 23명과 함께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 회합에 참석한 한 정신과 의사가 한주 동안에 100-300명의 정신과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여 대회 후에 미국에서 간 팀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분은 서울의대 일 년 선배로 군 복무 때 새로운 방법을 착안하여 제대 후에 개업에 사용한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한창 정신분석이 유행하던 시절이라 그것 또한 신 개업술로 이해했지만, 참석한 사람들은 그가 보여주는 엄청난 액수의 수입에 놀랐고 흥미로워 했다.

자본주의 계급사회인 미국에서도 이런 개업 방법이 가능하면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논이 나왔다. 물론 의료 보험, 부작용 등으로 오는 소송의 문제 등이 있지만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을 행사하여 정신과 의사가 수백 명에서 천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는 제도를 설립하게 될지도 모르고, 정신과뿐 아니라 의사의 양산을 미국 사회에 가져

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인들이 많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의 필요가 많아, 한국인 의사들이 이민 온 후에 쉽게 정신과 수련을 하고 직장을 구할 수 있어 수 천명이 정신과를 전공하거나, 거쳐 나갔다. 미국 의료 제도가 정신과나 여러 전문학과 의사의 수련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정신 의학의 가야 할 길(결론):**

끝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신 의학은 "몸과 마음"의 병이므로 신체적 건강 관리와 정신적인 건전성을 동시에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정신분석은 인간의 인격을 개선함으로써 이웃보다 더 현명하고 약빨라서 남을 지배하고 양심적으로 잘 살아가자는 목적으로 환자로 하여금, 모든 문화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유능한 개인을 만들고, 우세한 문화를 창조해 가려는 야심의 발동으로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나오는 신경 안정제, 항울제 등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 품종을 만들어 내는 시장을 겨냥하여 생산되기 일쑤다. 물론 부작용 등을 개선함으로써 개량한 다지만 새로운 개발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사용자나 처방자는 환자의 여러 가지 형편에 맞춘 약을 선택하도록 공부해야 하고 의사의 지시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다.

정신 질환을 다루는 데 있어 먼저 예방, 조기 발견, 적절한 환경 조성으로 건강 유지에 관심을 어려서부터 기울여야 하겠다. 몸의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운동, 스포츠 등이 필요하듯이 정신적 건강에도 지식의 흡수와 함께 감정의 영역을 가족, 친구 또 이웃을 통하여 넓히고 길러서 평화롭고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과 내적 환경을 더 연구하고 어떻게 치매를 중년서부터 예방하고, 어린이 발육 기전의 최선을 도모하느냐 하는데 모두가 현명해지고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는 교육이 앞으로 창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가정과 남녀의 관계에서도 인생의 일의 분담과 피로 회복, 행복감의 증진 또 사랑의 본질을 기르고 넓혀가는 데 있어 성생활의 연구와 각 가정의 독특한 방법이 인생을 통하여 배워가는 역할 등이 포스트 프로이트의 새로운 성 연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올바른 성생활을 통한 즐거움, 희망으로 긴장과 피로를 풀어 간다면 인종차별, 치장, 화장 등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려는 욕심을 떨고, 마약이나, 술, 담배로써 쾌락을 불러 들이는 노력과 사치를 저 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통증 클리닉이나 환각제 사용으로 일시적으로 도피하려는 것도 사라질 것이다. 최면술이나 침술로 통증을 극복한다지만 분석해 보면 엄밀한 마음의 준비와 지속적인 운동, 윤택한 성생활로 통증 극복이 된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동양인에 대한 차별 내지 학대에 관해서는 동양인이 미와 성향의 우월성을 연구하는 정신의학과와 심리학 연구자가 바로 동양인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본다.

또 한 가지 독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빌리지 않더라도 동문들이나 가족 또는 가까운 이웃에게 의료적 조언을 제공해 주는 미덕을 지속하여 길러주십사 하는 것인데, 이민 사회가 적였을 때에는 좀 더 너그 러웠던 감이 있었다고 보는데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